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69호

Monday, July 15, 2024 A

‘야만의 시대’ ... “암살 시도, 끝이 아니다”

(트럼프)

SPECIAL STORY

“몇 밀리미터 차이로 세계사는 바뀌었다.”

지난 13일 오후 6시15분 경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유세현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상에서 오른편의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연설 중이었다.

잠시 고개 돌려 차트로 시선을 향한 순간, ‘웅’하는 울림과 함께 오른쪽 귀 윗부분에 무언가 관통하는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들려온 총성.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유세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10여발의 총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는 그 30초 남짓한 사이, 한 명의 청중이 무참히 목숨을 잃고, 둘이 중상을 입었다. 스무 살 짜리 암살 시도범은 비밀경호국 스나이퍼의 대응 사격에 사살됐다.

앞둔 자신에게 몸을 날려 에워싼 비밀경호국 요원들 사이에서, 트럼프는 오른 쪽 귀를 감싸고 흐르는 피를 막았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었을까, 혹은 자신을 향한 ‘적들의 공격’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코 넘어 생명까지 노렸다는 데서 피어난 분노였을까? 분명한 것은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그의 머리를 빗나간 탄환은, 미국은 물론 세계의 역사를 뒤엎을 수 있는 역사적 ‘훅탄’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암살자가 제압됐다는 무전을 받은 요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리고 연단을 빠져나가며 경호요원들이 가로막은 틈을 기어이 비집고 변칙 손을 들었다. “Fight, Fight” 그는 외쳤다. 오른 뺨에는 두줄기 선혈이 흐르는 채였다.

민주당원들은 훗날 그 외침을 “분노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신하던 중 주먹을 들어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하고 싸워라’는 ‘선동’으로 이야기 할 것이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나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라는 ‘선언’으로 기억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계속 싸우겠다”고 외친 진짜 이유. 어쩌면 그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재차 벌어질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에서 나왔을 외침이었을 가능성에 일부 관계자들은 무게를 둔다. 허허벌판에 펼쳐진 유세장 인근 400피트 떨어진 1층 건물 옥상에 긴 소총을 메고 유유히 올라간 암살자가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 했다. “총을 든 수상한 이가 저기 있다”고 수많은 청중들이 신고 했었는데, 왜 아무런 제지도 이뤄지지 않았는가. 그 많은 경호 인력들은 무얼 하고 있었나. 경호 실패인가, 일부

러 소홀했던 경호인가. 진영간의 다른 해석에 미국은 또다시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실행 될 수 있다..” 살상 드론까지 만연한 시대, 기상천외한 방법의 암살시도가 앞으로 네 달 간 무수히 시도될 수도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느 순간 1960년대의 혼란에 버금가는 ‘야만의 시대’에 접어든 상태. 절반의 국민들은 2021년 1월6일 ‘의사당 난입사태’를 이야기 하며 트럼프 극단 지지자로 총칭 되곤 하는 ‘우파’를 미국 내 폭력과 분열의 주범으로 꼽는다.

그러나 또다른 절반의 미국민들은 ‘BLM(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빌미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안티파’ 등 극렬 좌파들의 각종 소요사태

를 기점으로 진보와 보수, 좌로 우로 갈린 미국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분열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연방의회가 의사당 난입사태를 철저히 조사한 반면, 보다 큰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야기한 ‘BLM 폭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의 ‘숨방망이 처벌’이 전부였다. 실제로 2022년 당시 전국경찰협회 및 라스문센 리포트가 전국 1000여명을 대상으로 펼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종과 상관 없이 응답자 66%가 BLM 폭동사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박세용 기자

▶ 2면 ‘야만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 관계기사 2, 3, 4면

공화당 전당대회 ‘오늘 개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피격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공화당은 오늘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럼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식 지명하는 한편 그의 러닝메이트를 선보이고, 주요 공약과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다. 공화당은 부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 참석 하에, 전대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화당은 3일차인 오는 17일 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에 이어 최종일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트럼프 집권 2기 비전’을 밝히고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부터 시작해 지난달 마무리된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이미 지난 3월에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당 후보로나선 2016년 대선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2020년 대선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등극한다.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 대선을 110여일 앞두고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꼽히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서개최하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일찌감치 ‘트럼프 대세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3면 ‘전당대회’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반지매입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젠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www.davidmarkslaw.com
www.davidmarkslaw.com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120m 옆 지붕서 탕탕... 피격 직후 트럼프 주먹 쥐고 "싸우자"

트럼프 암살미수 긴박했던 순간
총소리 뒤 오른쪽 귀 잡아
유세장서 1명 사망, 2명 중상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는 전체 주민이 1만3000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백인 블루칼라가 대부분인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15일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몰이'를 하기에 안정맞춤인 곳이었다.

이날 오후 6시3분 트럼프는 공연장인 '버틀러 팝 쇼'에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의 '신이시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the USA)'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대에 올라 군중의 손을 흔들며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

유세장 밖에 있던 그레그 스미스는 이날 BBC방송에 연설 시작 후 약 5분쯤 지나 "우리 옆 건물의 지붕 위로 곰처럼 기어 올라가는 남자를 봤다"며 "그는 소총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고개 돌리지 않았다면 큰 부상"

총격은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단정책을 성토했을 때 일어났다. 6시11분쯤 그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보고 싶다면..."이라며 불법 이민 통계를 표시된 스크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대체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그때 멀리서 "따다닥"하는 연발 총성이 들렸다.

거의 동시에 트럼프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만진 뒤 황급히 단상 아래로 몸을 숙였다. 총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개 숙여!"라고 외치며 비밀경호국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다급하게 뛰어올라와 트럼프를 감쌌다. 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유세에 참여했던 베네사 애셔는 NBC 방송에 "트럼프가 제때 차트 중 하나를 보기 위해 머리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머리에 총알을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1분 후 긴장한 표정의 트럼프가 대여섯 명의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대 마이크는 여전히 켜진 채였고, 트럼프는 경호원들에게 네 번 "신발 좀 쟁길게(Let me get my shoes)"라고 말했다. 그의 오른쪽 귀가와 뺨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합니다"라며 그를 연단 아래로 이끌었다.

갑자기 트럼프는 "기다려, 기다려"라고 말한 뒤 특유의 강렬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치켜들면서 "싸워라(fight), 싸워라"라고 외쳤다.

총성 후 총격과 공포에 질렸던 지지자들은 이에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다. 트럼프는 경호원의 호위 속에 차에 올라타기 직전에도 또 다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연출했다. 6시14분쯤 트럼프는 유세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이동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 장면을 두고 "트럼프는 자신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피를 흘리는 얼굴 위로 주먹을 들어 보이며서 저항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역사에 잊히지 않을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그의 '본능'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이런 이미지는 애틀랜타 감옥에서 찍은 머그샷이나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후 백악관 복귀 장면 때처럼 트럼프 신화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용의자는 경호원들의 대응사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세장에서 120m가량 떨어진 공장 건물 지붕에 용의자의 시신이 널브러진 모습이 SNS를 통해 퍼졌다. 용의자가 트럼프를 향해 최대 8발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그가 정확히 몇 발을 쏘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용의자와 트럼프 사이 관람석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트럼프, 응급처치 뒤 개인 골프클럽 이동

6시42분 트럼프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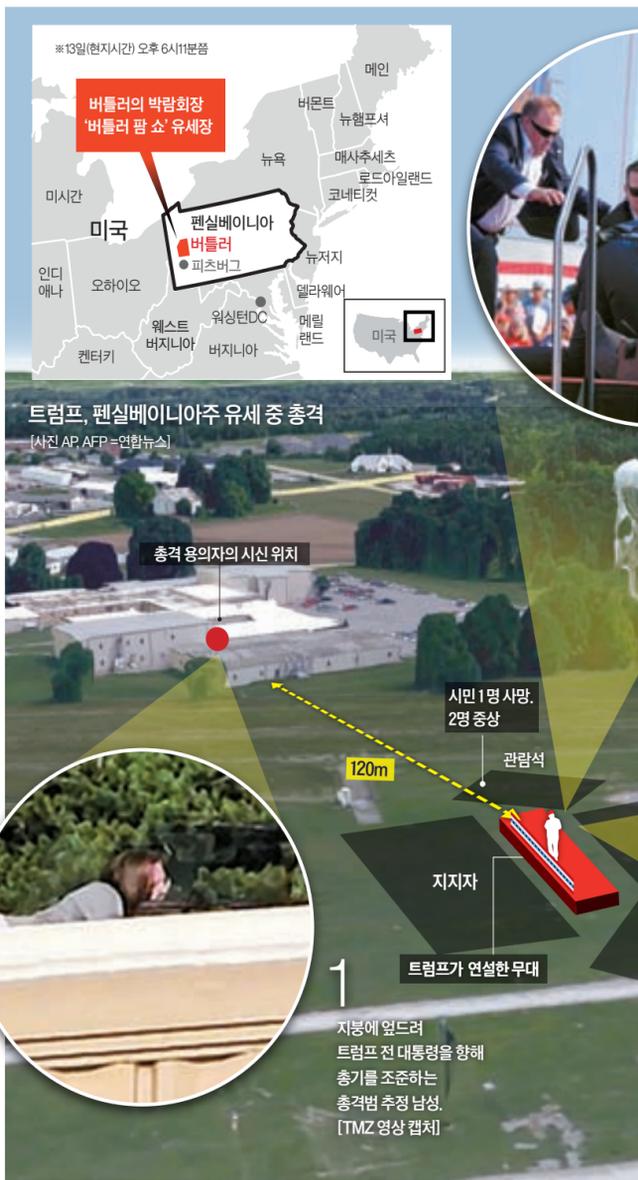
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도 사건 발생 후 2시간30분가량 지나 직접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총알이 내 오른쪽 귀 뒷부분을 관통했다"며 "나는 원형 거리의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고 적었다. 지지자들에게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I WILL NEVER SURRENDER!)이라는 짧은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 지역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트럼프는 14일 새벽 뉴저지 뉴어크 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캠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마고 마틴은 도착 영상을 자신의 엑스계정에 올렸는데 노타이 차림의 트럼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전용기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왼손을 들어 인사하는 여유도 보였다. 마틴은 영상과 함께 "그는 강하고 회복했다. 미국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는 뉴저지 인근 개인 골프클럽에서 이날 밤을 보낸 뒤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 1면 '야만의 시대'에서 이어집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대선을 '사기'로 규정하고 재선 도전을 일찌감치 천명한 '정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사법조사를 이어가며, 그와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화'에 열 올렸다.

고 지나쳤다는 뜻이다. 유명한 예가 바이든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행한 2022년 9월1일 연설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붉게 조명한 '자유의 종' 앞에서 펼친 연설로, 바이든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 가치를 위협하는 파시스트라고 사실상 규정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던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들은 우리 공화국의 근본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대표한다"고 주장했고, 연설 자체를 '국가의 영혼을 위한 전투'라고 명명했다.

투를 행할 '적'으로 만든 것이다. 15일 사살된 암살 시도범 매튜 크록스는 스무살, 감수성에 미친 청소년 기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냈고 분열된 미국을 목격하며 그 중 하나의 진영을 선택했던 젊은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인 주장을 따르게 된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 중, 크록스 처럼 '외로운 야수'가 되었을 이가 단 하나 뿐일까? 트럼프에 대한 제2, 제3의 암살 시도가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두의 자성론이 늦었지만 고개 들고 있는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연설에서 트럼프를 '과녁'으로 삼아 달라고 주문 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나"라고 말한다. 분열과 폭력, '야만의 시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박세용 기자

워싱턴 날씨 (°F)	
16일(화) 100~77	19일(금) 88~68
17일(수) 96~72	20일(토) 86~69
18일(목) 85~68	21일(일) 88~70
7월 15일(월) 96~7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한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총격 전 “곰처럼 사람이 지붕 올라가” 신고… 경호실패 논란



3 총상을 입고 연단 아래로 몸을 숨긴 트럼프를 에워싸는 미 비밀경호국 요원들.

4 유세장 무대 뒤편 건물 옥상에서 경찰 저격수들이 총격범을 향해 대응사격을 하고 있다.

2 귀에 총상을 입은 뒤 곧바로 몸을 낮춰 웅크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비밀경호국 저격수

자료: CNN, 구글맵

범인은 20세 백인 남성 크룩스 18세 되면서 공화당 당원등록 검사 “범행동기는 알 수 없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4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미수범은 유세가 열린 펜실베이니아주 베델파크에 거주하는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등록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용의자인 크룩스가 등록된 공화당원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크룩스에 대해 AP통신은 연방정부 재정보고서를 인용, 그가 2021년 1월 20일 진보정치운동위원회에 15달러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진보정치운동위원회는 통상 재향군인 문제를 다루거나 민주당 성향의 재향군인 출마를 지지하는 단체다. 당시 크룩스의 나이는 17세

였는데, 같은 해 9월 18세가 되면서 공화당 당원으로 투표 등록을 했다. 용의자 크룩스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리처드 골딘저 담당 검사는 ABC 방송에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선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크룩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한 사용자는 크룩스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토머스 크룩스는 2022년 베델파크 고교를 졸업했고, 내셔널 수학·과학 이니셔티브 스타상을 받았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내셔널 수학·과학 이니셔티브는 비영리단체로 STEM 분야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게 상을 수여한다.

수사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 많은 위협이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암살 미수범의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수사 당국은 이번 수사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크룩스는 13일 트럼프가 연설한 연단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건물에서 조준 사격을 했다. 주변 곳곳에 비밀경호국 요원과 저격수들은 크룩스가 여러 발 사격한 뒤에야 대응 사격을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TMZ는 14일 크룩스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남성은 지붕에 었드려 표적을 향해 총기를 조준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TMZ는 “남자가 갈색 긴 머리를 하고 회색 티셔츠,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다”며 “표적을 정확히 겨누려고 조심스럽게 노력하다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이

같은 영상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부실했는지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의자가 대중이 뻔히 지켜보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세장이 내려다보이는 지붕에 올라가 정조준 후 방아쇠까지 당겼다는 사실 때문이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SNS에 암살범이 숨진 장소라며 올라온 영상과 함께 “도대체 이렇게 흔히 보이는 곳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며 비밀경호국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인용한 뒤 “바로 거기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날 유세장 밖에 있던 그레그 스미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연설 시작 후 5분쯤 뒤에 총을 든 남성이 건물로 곰처럼 기어 올라가는 것을 봤고, 주변 경찰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정치적으로 힘을 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세하다.

이미 공화당이 ‘트럼프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를 극적으로 돌파한 극적 서사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전대는 마치 ‘트럼프 대관식’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 계기에 그간의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메시지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 지지층의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포용적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다음날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

금이 순간 우리가 단결해 미국인으로서 본성을 보여주고, 강하고 결연하게,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전당대회는 ▲ 15일에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경제) ▲ 16일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이민·범죄) ▲ 17일 미국을 다시 강하게(외교·안보) ▲ 18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국정 전반) 등을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정해진 주제가 있지만 트럼프 피격이라는 중대 사태가 벌어진 만큼 그 문제가 전당대회장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찬조 연설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모토 하에 반

트럼프 공세에 선거 전략을 집중해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주요 연설자 명단에는 부통령 후보로 이름이 거론돼 온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J.D. 밴스 상원의원, 더그 버컴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이 들어갔다.

또 한때 러닝 메이트 후보로 주목받았던 팀 스콧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엘리시스 스테파니크 하원의원(뉴욕) 등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강경 친(親)트럼프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과 함께 1·6의

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의회 증언을 거부해 수감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17일 석방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 등도 연설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초반에 포기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연설 명단에 포함됐지만, 가장 오래 남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연설은 불발됐다.

극우 논객 터커 칼슨, 래퍼 엠버 로즈,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 격투기 단체 UFC의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나 화이트 등 비정치인들도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 1번 ‘전당대회’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체로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81세)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드러낸 뒤 민주당이 후보

교체론으로 자중지란에 빠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그러던 차에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도중 발생한 피격 사건과 피격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치켜 들며 보인 대담한 모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유니파워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문&박
1984년 창립
합동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문일통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인연합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총격범, 평범한 중산층 출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토머스 매슈 크룩스(20·사망·사진)는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양로원 주방에서 일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지역 언론인 ‘트리뷴 리뷰’는 크룩스가 2022년 베설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그르 지백 의원은 크룩스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를 안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한 결과 크룩스는 차분하고 (성적은) 평균 이상이었다고 한다”고 트리뷴 리뷰에 말했다.

용의자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비영리 단체인 ‘전국 수학 및 과학 이니셔티브’(National Math and Science Initiative)에서 장학금 500달러를 받기도 했다.

인구 3만3천여명의 조용한 교외 도시인 베설 파크의 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매튜 가족은 트리뷴리뷰에 오전 7시에 집 밖에 경찰이 깔린 걸 확인했다며, “베설파크와 관련돼 있을 줄은 예상도 못했다”고 했다.

마을 주민 짐 자워스키(70)는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웃들이 서로 인사를 건네지만, 특별히 서로 친밀감을 드러내는 지역은 아니다”라며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용의자) 가족들도 완전히 망연자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라니아 “괴물이 남편 공격해” 성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4일 남편의 암살을 시도한 총격범을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EPA=연합뉴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총알이 내 남편을 지나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삶과 아들 배런의 삶이 치명적 파손의 경계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경호 당국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사상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내 남편을 비인간적인 정치 기계로 인지한 괴물이 트럼프의 열정에 조종을 울려 했다”며 “그의 진면목인 인간적 부분들은 정치에 묻혀버렸다”고 비판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의견의 다름이나 정치 게임은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

점을 잊지 말자”면서 “정치적 이념은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단순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는 우리 공동체를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사랑과 열정, 친절함과 공감 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도 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좌우를 떠나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면서 “새벽이 밝았다. 우리는 다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정치적 분열을 넘어 위로를 전한 모든 분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를 비롯한 대부분 정치 일정에 불참하며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 발생 하루만인 이날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대선판 흔든 한장의 사진 “역사적 순간 직감”

13일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선 사진 한장이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이 엑스에 올린 사진

총격 직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단상에서 내려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아래에서 담은 이 사진은 배경에 나부끼는 미국 성조기까지 더해져 마치 영웅적인 분위기마저 자아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한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강인한 인상을 주는 이 사진은 이미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공화당의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리며 “그는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더그 버건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SNS에 같은 사진을 올리며 트럼프의 견제함을 강조했다.

급박하게 돌아간 현장에서 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이는 AP 통신의 이번 부치 수석 사진 기자다.

2003년부터 20년 넘게 AP에서 일한 베테랑 기자인 그는 2020년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흑인 조지 플로이

드 사망 이후 미국 전역으로 번진 흑인 인권 시위 현장을 취재한 사진으로 이듬해 풀리처상을 받았다.

이날 피 흘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촬영한 부치 기자는 이후 AP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총격 소리를 들은 바로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미국 역사에서 기록되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고 회고했다.

부치 기자는 당시 자신이 “수백 번도 더 촬영해 본” 평범한 유세 현장이었던 곳에서 갑자기 자신의 왼쪽 어깨 너머로 여러 차들의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그는 “그 즉시 나는 이게 총격임을 알았다”며 “그 순간부터 나는 단상으로 달려갔고 트럼프 전 대통령 위를 감싼 경호 요원들을 찍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단상 왼쪽에서 촬영을 하던 부치 기자는 반대쪽에 비밀경호국 요원이 도

착한 것을 보고 곧장 그쪽으로 달려갔으며, 이후 단상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래에서 찍을 수 있었다.

부치 기자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서 이 일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렇게 찍힌 이 사진이 올해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은 이 사진이 “내일 모든 신문 1면에 실릴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싱크탱크 퀴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행정부회장은 “2024 선거를 규정하는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미국 언론들이 쏟아낸 현장 사진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관통한 총알의 날아가는 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어 화제가 됐다.

NYT가 공개한 사진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로 공기 중에 희미한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이 사진을 본 전직 연방수사국(FBI) 요원 마이클 해리건은 NYT에 “이는 발사체로 인한 공기의 움직임 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날아가는) 각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지나가기에는 다소 낮아 보이지만 총격범이 여러 발을 쏘았다면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밀경호국 “경호 요청 거부 없었다”

비밀경호국(SS)과 연방수사국(FBI)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피격사건에 앞서 당국이 추가 경호 강화를 거부했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 경호

앤서니 굴리엘미 SS 대변인은 소셜 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경호 강화 주장을 묵살했다는 관측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SS는 유세 일정에 맞춰 보호 자원 및 기술, 역량 지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인사 경호를 책임지는 SS 소관이다.

현지 FBI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추가 안보 요구를 묵살한 사례가 없다고 확인했다.

FBI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사무실을 책임지는 케빈 로젝은 회견에서

“FBI가 추가적인 안보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그러나 SS를 산하에 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반복되는 경호 강화 요청을 묵살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로 돌리고 있다.

마이크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 강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한 반복적 요구가 있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마요르카스 장관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DC 오피스빌딩, 아파트로 속속 전환

‘공실률 줄이기’ 정책적 지원 현재 프로젝트 12개 추진중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DC 다운타운의 한 오피스 빌딩이 아파트 건물로 면모를 일신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팬데믹 이후 다운타운 사무실 공실률이 치솟아 재산세 수입이 격감하자 자구책으로 이러한 빌딩을 아파트 건물로 리모델링할 경우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 수준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워싱턴DC 노스웨스트 20번가와 L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엘르 아파트는 기존에 공실률이 40%가 넘어 사실상 사무실 빌딩 기능을 상실했었는데, 2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163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로 변신했다.

워싱턴DC 다운타운에만 현재 이같은 프로젝트 12개가 추진되고 있다. 뮤



리엘 바우저 시장은 “다운타운의 사무실 빌딩 면적과 거주지 면적 비율은 90대10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앞으로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다 균형적인 비율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으로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급격히 치솟았다. 연방상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팬데

믹 이전 원격근무자가 800만명에서 현재 9천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사무실 빌딩 공실률은 20%로, 팬데믹 봉쇄가 가장 심했던 2021년 1분기의 19.3%보다 높았다.

부동산 조사기관 렌트카페에 따르면 워싱턴DC와 뉴욕, 달라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올해 5만 5300개 이상의 오피스

빌딩이 주거용 빌딩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같은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300억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정책 금융을 대규모로 집행해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리모델링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애초 사무실 빌딩에는 주방과 욕실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으나, 아파트로 리모델링 할 경우 전면적인 구조변경이 불가피하다. 또한 주택 관련 건축법규상 외부 개방형 창문도 일정 개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아밖에도 세탁기 설치 등으로 늘어나는 하수용량을 감당할 만한 하수도가 필요하다. 사무실과 주택의 층간 높이가 다르며 엘리베이터 접근성과 관련된 규제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김욱재 기자

연방정부 온열질환 방지법 강화 업계 반발 극심



백악관과 연방노동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지속 기간이 길어지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기온이 80도 이상일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물과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근로자 신체가 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온이 90도를 넘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병 여부를 관찰하고 2시간 근로당 15분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전국적으로 5천만명 이상의 야외활동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업계의 반발로 아직 시안 형태로 남아있으며 유보조항 탓에 2026년 이후에나 법제화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 관광업, 제조업, 원유시추업 등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골적으로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시안조차 폐기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현재 연방노동부 OSHA 시행령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15분 간격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늘지거나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용주는 또한 신입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 등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욱재 기자

VA, 기업하기 좋은 곳 ‘전국 1위’

MD 작년 27위에서 31위로 밀려 삶의 질은 VA보다 앞서

버지니아가 경제전문채널 CNBC가 선정한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주 1위로 복귀했다.

버지니아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모두 6차례, 최근 5년래 3차례 1위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버지니아는 2019년과 2021년에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3위에 머물러, 글렌 영킨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한 바 있다. 2020년은 팬데믹 영향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버지니아는 2011년과 2009년, 2007년에도 1위를 올랐었다. 전체 10개 분야에 걸쳐 2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버지니아는 올해 1595점을 얻었다.



버지니아는 잘 갖춰진 고등교육 시스템 등의 영향으로 교육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각종 경제적 인프라, 기업설립 허가 신속성, 기업 친화성, 인력 공급 안정성, 경제 발전 정도, 테크놀로지, 혁신, 삶의 질 등의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으나 기업 비용 측면에서는 중간정도의 점수에 그쳤다.

메릴랜드는 작년 27위에서 올해 31위로 밀렸는데, 특히 기업 비용 분야에



‘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한국 정부 제정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14일 워싱턴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유숙) 주최로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수잔 슐터 북한자유연합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에서 이성윤 박사가 연설하고 있다.

서는 47위로 매우 저조했다. 하지만 삶의 질 분야 조사에서는 16위를 기록해 버지니아(19위)를 앞섰다. 메릴랜드는 테크놀로지 및 혁신 분야에서 8위를 기록했다. 버지니아에 이어 노스 캐롤라

이나,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 미네소타,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워싱턴이 10위권에 올랐다.

워싱턴DC는 이 조사에서 늘 제외돼 왔다. 김윤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삶의 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ML2501870; MD 2501870; NC.L-219065; VA.MC-7782; TX 2501870; PA 106923; FL.ML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빌)
웨일리노레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현대차 또 절도 타깃... 전자장비로 잠금 해제

**‘게임보이’와 유사한 장비 사용
아이오닉5 등 전기차가 대상**

현대차가 또 절도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절도 챌린지’ 유행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내 도난 신고 건수 1~3위를 차지한 가운데, 해당 제조사의 전기자동차까지 노린 지능형 절도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온라인 자동차 매체 오토에볼루션은 차량 절도범 사이에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타깃이 됐다고 보도했다. 절도범은 고가의 전자 장비를 활용해 전기자동차 잠금장치를 풀고 차를 훔쳐가고 있다. 이 수법은 전자장비가 닌텐도 게임보이 콘솔과 유사해 ‘게임보이 차량 절도’로 불리고 있다.

한국산 전기자동차 절도에는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전자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절도범은 게임보이 콘솔 모양의 ‘키 에뮬레이터(Key

emulators)’라는 전자장비로 전기자동차에 신호를 보낸다. 이럴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는 키 에뮬레이터가 보낸 신호를 진짜 키라고 인식, 절도범이 전기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다.

실제 유튜브에 공개된 한 영상에는 절도범 두 명이 키 에뮬레이터로 1분 만에 ‘현대 아이오닉5’를 훔쳐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절도범은 차량 소유자 계정에서 전기자동차를 삭제하면서 위치추적까지 피하고 있다.

이 매체는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고가 장비인 키 에뮬레이터를 활용한 차량 절도 피해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 절도 챌린지는 차량을 쉽게 훔치는 방법이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며 피해를 키웠다. 앨란트라, 쏘나타, 옵티마 등 절도피해 차량은 푸시 버튼 장치와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구형 기본 트림이었다. 김형재 기자

“한국 대학 오세요” 한인 학생 모시기

의예과 특별전형 38% 증가

한국의 대학들이 한인 학생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LA에서 한국대학 엑스포까지 열린다.

먼저 한국의 대학들이 미국 등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을 위해 특별전형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인 고등학교 졸업생은 최근 증원이 확정된 의과대학 등 한국 주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 교육부와 대학가는 지난 8일(한국시간)부터 대학별 세부 일정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특별전형은 미국 등 해외에서 일정 기간 공부한 한국 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 특례제도다.

지원 자격은 해외 파견 재직자·현지 취업자·현지 자영업자 자녀로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을 미국 등 해외 학교에서 다닌 학생이다. 또한 해외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학생도 포함된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내 127개 대학에서 총 4384명의 재외국민을 선발했다.

특히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 시민권자인 한인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별전형을 활용해 한국 의과대학에 도전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

은 12곳으로 총 29명을 선발한다. 고려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 등 9개 대학은 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가톨릭대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나머지 2개 대학은 9월부터 접수한다.

의예과가 모집하는 외국인·외국인 특별전형 정원은 지난해 21명보다 38% 늘었다.

한국 대학의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일반학과 모집은 건국대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

건국대학교는 9일부터 11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26일 필기 고사 또는 서류 평가, 8월 6일 면접고사 후 9월 13일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김형재 기자

해외서 미국 전자여행허가 발급 주의보

A씨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고자 포털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뒤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화 135달러를 결제했다.

국도안보부가 운영하는 ES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21달러)의 6배 이상을 지불한 셈이다.

뒤늦게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운영주는 묵묵부답

으로 일관했고 끝내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해외의 ESTA 신청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 상담이 잇따라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8건 접수됐다.

8건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사례

였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또 한국 포털 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 ‘달’ 담은 다례 시연회 상황 비영리 한인 여성 예술단체 ‘코리아아메리칸뮤즈(KAM)’가 한국의 ‘달’을 주제로 진행한 ‘다례식’이 11일 이별극장 라운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례 전문가 이명미 선생은 57가지의 한국 전통 다례의식을 시연했다. 다례 시연과 함께 국악과 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음악 공연도 펼쳐졌다. 100여명의 참석자가 행사 마지막 순서인 ‘다찬화’에서 연잎차와 다식을 시음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SK에너지아메리카, 가주와 2500만불 합의

**토런스 정유공장 폭발사고 당시
개스값 담합 부당이익 혐의 기소**

가주에서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SK에너지 아메리카가 주정부와 약 350억원에 합의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주 법무장관은 이날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 온 SK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거래 업체 비톨과 총액 5000만 달러에 합의해 양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소재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사고 당시 총 1000만 갤런 이상의 휘발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엑손모빌 정유공장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휘발유의 10% 이상을 공급해 왔는데, 가주 정부는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이 엑손모빌 공장의 폭발 상황을 이용해 약 1억500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베벌리힐스...’ 배우 새년 도허티, 암투병 끝에 별세

1990년대 미국 드라마 ‘베벌리힐스의 아이들’(원제 ‘비벌리힐스, 90210’)로 인기를 끈 배우 새년 도허티(사진)가 5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4일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도허티의 홍보담당자는 도허티가 수년간의 암 투병 끝에 전날 숨졌다고 밝혔다.

도허티는 2015년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2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 암이 재발해 전이됐으며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암이 뇌로 전이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암 투병기를 공유해 왔으며, 최근 에피소드는 이달 8일 방송됐다.

그는 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을 알면서도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2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하고 투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 결국 이런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1971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난 도허티는 어린 시절 가족을 따라 로스앤젤레스(LA)로 이주한 뒤 10세 때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초원의 집’, ‘헤더스’ 등 여러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다 1990년대 LA의 부촌 베벌리힐스를 배경으로 한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 ‘베벌리힐스의 아이들’에서 주인공 중 한 명



인 브랜드 월시를 연기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 드라마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시즌에 걸쳐 방영돼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통해 초기 시즌이 방영돼 인기를 끌었다.

다만 도허티는 이 드라마 촬영장에서 일부 출연진과 갈등을 빚었고 자주 지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1994년 ‘시즌 4’가 끝날 무렵 하차했다.

드라마 ‘베벌리힐스...’에서 ‘브랜든’ 역을 맡아 도허티와 남매 사이로 출연한 배우 제이슨 프리스틀리는 도허티의 부고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며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인스타그램에 썼다.

이 드라마에서 도허티의 상대역 ‘딜란’을 연기한 배우 루크 페리는 2019년 3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52세를 일기로 별세한 바 있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빌딩 3층**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개인 독재로 회귀하는 중·러... 무력 사용 리스크도 커져

“표면보다 뿌리를 보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 대해 우리가 취할 태도다. 두 독재자는 거침없이 내닫는다. 조약에는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과거 냉전 시대의 기억을 소환한다.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강화의 원인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외교적 수사과 대응보다 권위주의 내부 체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변동의 근원은 개인 독재의 강화다. 이것이 세계질서를 더욱 요동치게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내부체제 변화가 가져온 무력도발의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 일인 독주 체제가 공고화하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독단을 견제할 제도와 규범이 허물어지고 있다. 최고지도자와 지배 연합세력 사이의 권력균형이 깨졌다. 후계자 승계는 불투명하고, 독재자 승배는 농후해진다.

보스형 독재자는 무력으로 야심 추구

개인 독재의 부활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 모든 독재 또는 권위주의 체제가 동일하게 호전적이지는 않다. 권위주의 유형에 따른 전쟁 추구 성향 연구의 권위자인 제시카 워크스 미국 위스콘신대 정치학 교수는 보스형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는 개인 독재의 전쟁 리스크를 간과했다. 최고지도자 개인이 주요 정책과 인사를 독점하는 개인 독재는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른 유형의 독재체제보다 높다는 것이다.

워크스 교수는 1946~1999년에 발생한 전 세계 무력도발 관련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독재 유형과 무력도발의 상관관계를 엄정하게 실증했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담 후세인, 무아마르 카다피, 마오쩌둥, 이오시프 스탈린 등과 같은 보스형 독재자들은 다른 체제 유형의 지도자들에 비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보스형 독재자들은 국내에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듯이 국외에서도 거대한 야심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후세인은 범아랍 이슬람제국 건설을 갈망했고, 카다피는 아프리카 통일정부 건설을 천명했다. 독재자 측근 엘리트 세력은 막강한 권력자의 야심을 제약하지 않는다. 위대한 영도자의 전쟁에 대한 오만에 이의를 제기하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유사시 군사원조 명시
개인 독재 체제의 선제 공격 가능성, 집단 독재 유형보다 높아
북·중·러와 긴장·대립 불가피, 튼튼하고 유능한 안보협력 긴요
우리 국력과 위상도 높아져, 창의적·선제적 외교 전략 펼쳐야

기도 힘들다. 또한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는 독재자들은 조직적인 엘리트의 도전이나 강력한 민중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스형 독재자는 큰 정치적 비용 없이 무력을 사용하여 야심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 엘리트(또는 패권정당)로 구성된 집단적 문민 독재는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서도 무력 도발을 더 많이 하지 않는다. 집단적 독재에서는 최고지도자 측근 세력이 경우에 따라 최고지도자를 축출할 능력을 갖춘 잠재적 감시 및 견제 세력이기도 하다. 최고지도자는 무력 도발 실패의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불리 전쟁을 추구하지 못한다. 마오쩌둥 사후의 중국, 스탈린 사후의 옛 소련(현재 러시아), 베트남 등이 대표적인 집단적 문민 독재다.

푸틴·시진핑, 강한 개인적 유대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감행할 줄은 러시아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초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임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3연임을 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는 과거 집단적 독재 모델 분석에 안주한 방식의 결과이자 불운이다.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은 개인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과거에 매여 독재 정치

의 변천을 간과해선 안 된다. 만약 옛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야심과 개인 독재가 강화될 경우, 갈등 해결을 위한 중·러의 선제적 무력 사용 가능성은 증대될 수 있다.

북·러 밀착이 중·러 관계 소원(疏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른 망심이다. 중국은 자신이 국제적 불량 국가인 북한·러시아와 같은 진영으로 취급되는 것을 불편해한다. 중국과 소련 간 이념·국경 분쟁의 흑역사도 있다. 자유 진영 국가들이 중·러의 틈새를 벌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점점 잦아진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이 중·소 분열의 틈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경험에 바탕을 둔 전략적 시각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중·러 갈등 요소는 개인 차원에서 두 보스형 독재자들에 의해 관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의 아들로서 비슷한 연배의 시진핑과 푸틴은 강한 개인적 유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충격적인 체제 혼란과 붕괴를 목도했고, 반(反)서구 권위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푸틴은 국가 보안위원회(KGB) 요원 훈련을 통해 능숙한 대인관계 유지·조종의 기술을 습득했다. 시진핑 역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전술의 달인이었던 아버지 시중헌으로부터 유사한 기술을 배웠

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들은 큰 전략적 목표를 위해 이견과 갈등을 노련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완을 지녔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편에 의한 중·러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갈 공산이 크다.

약소국 담론에 갈릴 필요는 없어

우리는 개인 독재의 귀환과 북한과 연계된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다. 당장은 미국과 그 아시아·유럽 동맹들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다. 여러 군사력 지표에서 미국 및 동맹 진영과 북·중·러 진영 간 차이는 상당하다. 단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은 신뢰할 만하다. 게다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국력과 위상도 지난 20여 년 사이에 급부상했다. 2023년 호주 로이연구소의 아시아 군사력 지표에 따르면 미국·중국·러시아·인도에 이어 한국은 5위 군사 강국이며 일본은 6위 군사 강국이다. 2024년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군사력 지표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 국가다.

한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문화력 등 거의 모든 글로벌 지표에서 10위권에 진입한 세계의 중심국이자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은 더 이상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가난한 약소국이 아니다. 여전히 약소국 담론에 갇혀 있으면,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외교전략을 펼치기가 힘들어진다. 과도한 불안과 낙담에 빠지면 과잉 반응의 리스크도 커진다. 세계적 차원의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영향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경쟁의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패권 장악 시도 대비해야

단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개인 독재발 전쟁의 가능성이 작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빠른 군비증강과 패권 장악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 동맹국들의 안보 책임과 부담은 증대될 수도 있다. 북·중·러에 대한 군사적 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일본·호주·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군비 증강 및 협력은 긴요하다. 전략적 균형 및 억지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북·중·러와의 긴장과 대립은 불가피하다. 억지는 힘이 전제 조건이기에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 굴종이 아니라 공존을 위해서 억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냉전이 아니라 열전(hot war)의 확산을 우려해야 할 때다. 열전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튼튼하고 유능한 안보다.

동아시아에서 개인 독재발 무력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억지 전략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보장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여기에서 보장 전략이란 만약 개인 독재국들이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정책에서 선회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부적인 조치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보장의 측면에서 개인 독재 체제가 지닌 취약성, 즉 외부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과 체제 불안 가능성을 전략적 차원에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외부세계가 독재국가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음을 독재자에게 설득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국제사회는 독재자들과의 직접 대면 회의를 통해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는 개인 독재체제에서는 최고지도자들이 에스맨들에 의해 둘러싸여 불분한 진실이나 정책 과오를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왜곡은 오판과 재앙적 정책으로 귀결될 리스크를 높일 뿐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상외교도 중요하다.

개인 독재의 귀환은 한국에 실존적 도전 과제다. 지정학적 격랑이 이는 바다에서 대한민국호가 편안한 항해를 하기는 어렵다. 고요한 바다는 훌륭한 선원을 만들지 못한다. 개항 이후 약 150년 동안의 뼈를 깎는 고투와 도약은 한국인을 끊임없이 단련시켰다. 새로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결된 팀 코리아 정신과 목직항 평정심이 필요하다.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충돌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독점 Manassas Park 싱글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2 Car Garage, 앞뜰과 뒷뜰 넓은 데크!

\$690,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펜스.

\$439,9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7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42%가 국선변호인데...수임료 건당 31만원 그쳐

(지난해 피고인)

돈 제때 못받는 국선변호인

빈곤·고령 피고인 증가, 예산 제자리
국선 전담변호사, 월 20건씩 수입
범죄 무관 수입료 같은것도 문제
“변호비 제대로 주게 예산 늘려야”

광주광역시에서 일하는 변호사 A씨는 지난 5월 말 입금됐어야 할 할 국선 변호비를 이달 초에야 받았다. “2주쯤 늦어지나 했는데 6월 말까지도 안 들어와서 주변에 물어보니 비슷한 사람이 여럿 있더라”고 했다. 부산과 대구에서 일하는 다른 변호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부산의 변호사 B씨는 “3월에 끝난 사건인데 6월에야 보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대구의 변호사 C씨도 “적 달 가까이 입금이 늦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의 수입료를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전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 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밀린 보수를 올해 초에야 지급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선변호료 예산은 54%가 집행됐다.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 법원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의 수요를 조사해 기획재정부에서 국선변호인 예산을 받아온다. 이후 이를 각 법원에 5회에 나눠 분배한다. 일선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 청구한 뒤 예산이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예년보다 더 걸렸고, 액수도 필요한 금액보다 적었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3월에 끝난 재판의 국선변호인 보수를 6월에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속출했다



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국선변호 비중이 커지면서 생긴 일이라는 게 법원 내부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국선변호를 받은 피고인 수는 13만 6792명으로 2022년(12만2541명) 대비 1만4251명 늘었다. 같은 시기 형사피고인 숫자는 31만502명에서 32만5760명으로 1만5258명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형사피고인의 42%가 국선 변호를 받았다는 의미다.

국선변호 수요가 늘어난 데는 경제난으로 국선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못 받는 70세 이상 고령 피고인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원 내부의 분석이다. 이에 더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軍) 피고인이 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이미 구속된 사람이 별

건으로 기소될 경우, 따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국선변호인 수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예산은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선변호 피고인은 2022년 대비 11.6%(12만2541명→13만6792명) 늘었지만, 예산은 7%(610억원→65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국선변호인 예산을 대폭 늘려 982억원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국선변호료 지급 연체가 고령·장애 등 취약 피고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누구든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 안전망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옛날엔 국선변호인이 인기가 많아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렸는데, 요즘은 사실상 열정페이로 시키는 것이다 보니 별로 매력적인 일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정식으로 생긴 건 1962년 제5차 개헌을 통해서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 12조)는 규정이 이때 등장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국한했던 국선변호인 제도는 적용 범위도 점차 넓어졌다. 2012년에는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받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겼다. 2017년부터는 피의자가 체포·구속심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1심 재판까지 맡게 하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도 시행됐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예산이 위축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선 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6년 이후 18년째 월 기본

600만원(최초 위촉)을 유지하고 있다.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월평균 20건 안팎의 사건을 맡는 걸 감안하면 건당 약 31만원을 받는 셈이다. 사선과 국선을 함께 수입하는 일반 국선변호인은 건당 55만원을 받는다.

사건 종류와 무관하게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피고인이 일찌감치 자백하는 사건도, 무죄를 다투야 하는 사건도 국선 전담변호인이 받는 보수는 같다. 국선 일반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보수증액신청서를 내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률은 50% 정도에 그친다.

강력범죄와 같은 기피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중은 1심과 2심 변호인이 모두 국선이었다. 1심 변호인은 국선 전담변호사라 별도의 건당 보수를 받지 않았다. 일반 국선변호인이었던 2심 변호인은 증액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 55만원을 받는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상되는 중죄를 맡는 국선변호인은 시간당 100달러(약 13만원)를 받는다. 영국은 경죄는 사건당 248~471파운드(약 38만~73만원), 중죄는 수백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본은 형사 단독 사건의 경우 약 70만~82만원, 통상 합의사건은 90만~92만원, 중대합의사건은 약 103만원을 지급한다. 김희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최소한의 양식만 갖춘 명목뿐인 국선변호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연·최서인 기자

야당 ‘감세 우클릭’... 힘 받는 상속·증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기재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민주당 내 “중산층 세 부담 줄여야”
상속세 공제한도 10억원 이상으로
가상자산 과세도 미뤄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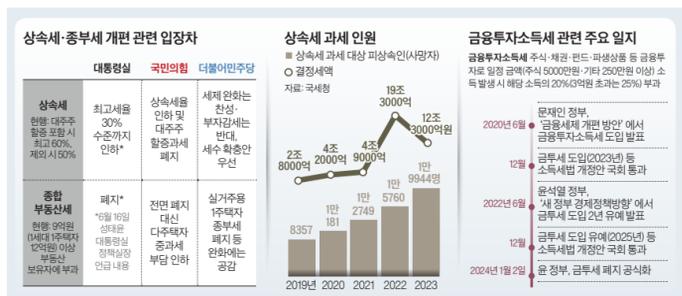
상속세·종합부동산세(증부세)는 소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부과 시기를 미루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미세 조정하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다. 강경 모드로 일관하던 야당이 최근 감세(減稅)에 다소 유화적으로 돌아서면서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인 내년 세법 개정안 마련에 한창이다.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증부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언급한 연장에서다. 감세 기조는 기정사실이고, ‘감세의 폭이 얼마나 될지가 화두’다. 그런데 감세라면 일단 반기부터 들던 야당에 최근 변화 기류가 감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금투세는 원론적으로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부세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이 있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선이 유력한 야당 대표가 야당 내에서도 제각각 목소리를 낸 금투세·증부세 완화 논란을 교동정리했다.

이날 언급은 빠졌지만, 상속세에 대해서도 야당 내 변화 조짐이 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조세개혁 TF)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超)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세의 경우 기재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최고세율 60%→50%)와 기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이미 발표했다. 나머지 중 1순위로 검토하는 현실론은 기존 공제 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 완화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거래가가 10억원을 훌쩍 넘긴 만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야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기재부는 증부세도 폐지 대신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보유자의 2.7%가 증부세 납부 대상자다. 증부세 납부액(4조2000억원)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했다. 증부세 전면 폐지를 추진할 경우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과 전면충돌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 중심지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현실론으로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금투세 폐지는 이전 국회에서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시행을 미루는 쪽으로 기류를 튼 만큼 여야 논의 과정에서 시행 유예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금투세를 매년 두 차례(6·12월) 원천징수하는 대신 연 1회 확정세액을 납부하는 식으로 바꿔 2026년 상반기부터 처음

과세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역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도 맞물려 있다. 금투세 시행은 미루는데 가상자산만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시행 유예에 무게가 실린다.

세종=김기환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3,600 SF Warehouse / Industrial \$1.35M



VA Mosaic District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Drive-In, 천장 18 FT, 495에서 1마일, SBA 융자가능, 추천업종: 창고, 도매업, 컨트랙터 쇼룸, 실내 골프장, 커머셜주방, 리테일

참고 | 샵센터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샵센터를 직접 투자 / 관리하고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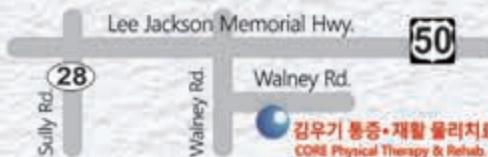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쯔양 협박·갈취 의혹 ‘사이버 레커’...“공갈죄 처벌될 수도”

유명인 악점 협박 유튜브 도마 위에 폭로 않는 대가로 수익원도 뜯어내 공갈·명예훼손 혐의 구속 잇따라

구독자 수 1100만의 먹방 유튜브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사이버 레커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재빨리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가리킨다. 이들의 행태를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레커차)에 빗댄 표현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카라콜라(이세욱)·전국진 등 이른바 ‘레커 연합’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녹취 파일에 따라

면, 지난해 구제역은 전국진 등과의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카라콜라는 구제역에게 “채널이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이니 잘 판단하라”고 했다.

몇 시간 뒤 쯔양은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사실을 털어냈다. 이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업소에서 일했고, 4년간 방송 수익 40억원 상당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대가로 받은 용역비였다”고 해명했다. 카라콜라는 “유튜버가 사이버 레커 채널을 규제할 것을 우려한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범조계에선 유명인에게 악점을 폭로

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면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범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의 힘을 빌렸다면 특수공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습공갈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엄모(30)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압구정 톨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공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가해자 신모(28)씨의 지인인 A씨 등에게 신씨와의 친분이거나 개인적인 범죄 혐의를 받하지 않겠다며 약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도 지난 2022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나라보관소’가 2004년 경남 밀양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총 5건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플랫폼의 강력한 규제가 구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형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는 각종 범죄 우려 콘텐츠가 넘쳐나는 아노미적 상태”라며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에 대한 수익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도 “관련 정부부처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어느 대학일까 14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시교육청 주최로 ‘2024 대입 상담 캠프’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학별, 전형별로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행사에는 부산 지역 대학과 서울 주요 대학 76곳이 참여했다. 송봉근 기자

미국 인태사령관 “중국, 대만 공격해도 주한미군 조정 안한다”

중국과 한반도 작전을 총괄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새뮤얼 파파로(60·미 해군 제독·사진) 사령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이 실제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의 어떤 군사력도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태사는 다국적 해양 훈련 ‘한태평양 합동연(RIMPAC·림팩)’ 기간 중 국내 취재진에 미 하와이 하급 공군기지를 공개했다. 인터뷰는 미국 측 요구로 하급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미 스텔스 전투기인 F-35B 5대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파파로 제독이 가운데서 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



행했다. 파파로 제독은 한국을 묘사하며 ‘동등한(equal)’이라는 단어를 8차례나 썼다. 이날 그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인태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정상들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하는 워싱턴DC로 향하는 길에 인태사를 방문한 건 매우 전략적인 행보였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물론 푸틴과 KJU(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매우 우려스러운 회담에 관한 논의, 한반도에서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의 확산이 주는 시사점,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응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워싱턴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우리는 NCG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대화를 꾸준히,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는.

“현재로서는 관련 입장이 없다. 분명한 것은 동등한 파트너이자 고도의 기술을 가진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동등

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토식 핵 공유’ 같이 한국 F-35 전투기로 미국 전술핵을 운용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사항으로 이는 그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NCG 내 고위급 정부 레벨에서 미국과 한국 간에 주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주한미군 조정 우려가 나온다.

“우리는 한반도의 어떤 군사력도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 미국이 가진 모든 전투 계획은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 지구적 계획이 될 것이다.”

진주만=이유정 기자

조선 24명 경력 부실신고

22대 국회 조선 의원 24명이 주요 민관(民官) 경력을 누락한 채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된 ‘국회의원 당선인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과 조선 의원들의 민간·공직 경력을 비교해 보니 131명 중 17명이 민간 경력을, 7명이 공직 경력을 누락했다.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의원 당선인은 당선 전 3년 이내에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재직하거나 자문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

관 일감수주 논란, 손해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신고가 의무화됐다. 지난 1월 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돼 세부 내역도 처음 공개됐다.

일부 의원은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근무 이력을 빠뜨렸다. 방송 관련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온라인매체 스피크스TV 대표 이력을 빠뜨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을지대학병원 재할 의학과 교수 이력을 신고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탈화석에 주장해 온 에너지전환포럼 감사 이력을 누락했다.

체육 관련 산하 기관을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신고서에는 T사의 사내이사 재직 경력이 없었다. T사는 사격장 운영, 정부 기관 컨설팅 등을 하는 업체다. 이밖에 노회찬 재단 이사(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8명이 비영리단체 임원 이력을 누락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힐 경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특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신고가 필수”라고 했다.

공직자 이력을 빠뜨린 의원도 7명이었다. 김기웅(통일부 차관)·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임종득(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의원이다. 의원의 공직자 이력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피감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김기웅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이성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임종득 의원은 국방위원회 등 자신이 몸담았던 곳과 밀접한 상임위에 속해 있다. 신고 누락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실수가 있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노종면·박지혜 의원은 “등록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정정하겠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병원 재직도 등록 대상인 줄 몰랐다”고, 진종오 의원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김기웅·이성윤 의원 측은 “공직 경력은 신고 대상이 아닌 줄로 알았다”고 말했다.

사적 이해관계를 고의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징계 사례는 없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누락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서류 접수를 마친 뒤 약 20일 동안 제한된 인원이 7000건이 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해 누락 내역까지 가려낼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비엔나 타운홈
방3+와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로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와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 박지성·이동국까지 반발 확산

박 "축협회장이 선택해야 할 상황" 이, 축구협 박주호 법적 대응엔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인데" 비판

대한축구협회(KFA)가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외국인 감독을 뽑으려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일방적으로 홍 감독을 선임하자 축구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지성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기술이사)는 지난 1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MMCA 플레이:

주니어 풋살' 행사에서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은 슬픔"이라면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KFA에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또 "둘째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가장 슬픈 건 뭐 하나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성 디렉터는 "2002 월드컵을 통해 한국 축구는 상당히 변모했고, 앞으로 더욱 변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은 '그때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나라는 질문의 답을 이렇게 받고 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잠담한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잇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정몽규 KFA 회장에 대해서도 박지성은 작심한 듯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 회장의 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회장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루 뒤 13일에는 KFA 부회장 출신인 이동국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이슈와 관련해 한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강타한다. '법적 대응'이 그것"이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이런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KFA가 최근 감독 선임 과정의 부조리를 폭로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해 '비밀유지 서약 위반'을 들어 법적 조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KFA는 또 한번의 불통 행적으로 축구 팬들의 분노를 키웠다. 정식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 13일 '서면 결의'라는 편법을 통해 이사 23명 중 21명의 찬성을 얻어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축구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축구대표팀을 맡은 홍명보 감독이 코치 선임에는 '절차'를 강조하는 모습이 어색하다"면서 "KFA의 리더십과 행정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다 보니 모든 일이 희화화된다. 한국 축구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송지훈 기자

'36주 낙태 영상' 살인죄 수사의뢰 5년째 무법상태 낙태는 처벌 못해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관련 내용이 '36주 낙태 브이로그' 식의 제목을 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퍼졌다. 네티즌 사이에선 "만삭 임신부의 낙태는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과 A씨의 낙태 사실 자체가 조작됐

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임신 24주를 넘겨 낙태를 하는 것은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가 실제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판단을 받으려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복지

부가 만삭 낙태 사례를 두고 직접 수사 의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 부분 허용' 등을 담은 정부 안과 여야 입법안이 여러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처럼 낙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무법' 상태가 계속되면서 임신부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을 보장받기 어려워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입법부 모두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정중훈 기자



오늘 초복 - 삼계탕 먹기 좋은 날 초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집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기상청은 오늘(15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더웠고,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뉴스]

조수미 "후배들 노래에 눈물 안 멈춰"

"결선에서 노래를 듣는데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13일 프랑스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며 전화를 받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프랑스 중부 루아르 지방의 고성(古城) '페르테 앙보' 성에서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가 이날 막을 내렸다. 전 세계 18~32세 성악가 24명이 일주일 동안 경연을 치렀고 바리톤 리지하오(중국·22), 테너 조르주 비르반(루마니아·29), 테너 이기업(한국·31)이 1~3위에 입상했다.

조수미가 이름을 걸고 연 첫 콩쿠르였다. 그는 "4년 전 대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며 "젊은 성악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갖게 해주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수미는 "일주일 동안 욕심을 엄청 냈다"고 말했다.

- "특별한 대회"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비 단계인 영상 심사에 500명이 47개국에서 지원했어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 놀랐어요. 프랑스에 올 24명을 뽑는 것도 힘들었는데 8명 최종 진출자를 추리면서 떨어진 16명의 실력이 너무 아쉬워서 계획에 없던 콘서트를 열었어요. 거기서 청중 온라인 투표로 한 명을 추가하고, 저와 심사위원장이 한 명씩 더해 결국 11명이 결선에 올랐죠."

- 콩쿠르는 냉혹한 평가의 장이지 않나요. "이 대회의 이름을 '드림 컴페티션 인 드림 캐슬(Dream competition in dream castle)'이라 붙였어요. 젊은 성악가들이 더 노래할 수 있다는 꿈을 품고 가기를 원했어요." - 젊을 때 나갔던 콩쿠르와 이번 대회, 뭐가 달랐나요. "제 경력은 콩쿠르로 시작됐죠. 비오티, 베로나, 나폴리,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별 콩쿠르를 다 했어요. 좋은 형편이 아니어서 콩쿠르 상금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썩 호텔에서 지내며 점심



조수미(왼쪽 셋째)가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초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3위 이기업, 1위 리지하오, 조수미, 2위 조르주 비르반. [뉴스]

도 못 먹고 경연장에 걸어가 빵 먹고 노래하고 그랬죠. 제 콩쿠르 참가자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랐어요. 콩쿠르 현장 주변에 근사한 부잣집이 많아요. 참가자 2명씩 엄청난 별장에서 휴스테인하게 했어요."

- 첫 대회인데 지원자도 많았어요. "첫 콩쿠르라 너무 두려웠어요. 3월 영상 신청 첫날, 딱 5명 온 거예요. 큰일 났다 싶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에 100명씩 들어왔어요. 특히 중국에서 180명이 지원했어요. 도저히 영상으로 볼 수 없어서 중국에 가서 노래를 들었죠. 하늘이 도와왔다고 할 수밖에요." -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나요. "노래 잘하는 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사람 됨, 문화적 기반을 봤죠. 어떤 주제로든 대화가 가능한 예술가, 무엇보다 본인이 음악을 왜 하는지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했죠."

- 입상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1등 해서 상 받고 끝? 이건 정말 아니죠.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캐스팅 감독, 뉴욕 메트로 폴리탄 극장의 예술 고문, 워너 뮤직 대표를 붙였어요. 앞으로 노래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싶었죠. 아, 통화하기 30분 전쯤 결정된 건데 1등 한 친구를 라스칼라 극장 디렉터가 이탈리아로 초청 하겠다고 했어요."

- 회를 마친 기분은요. "지원자 500명 중 350명 정도가 '조수미 노래를 들으며 꿈을 키웠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껏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수미 콩쿠르는 2026년 다시 열린다. 그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리골레토'의 질다역으로 데뷔한 지 꼭 40주년 되는 해가 그때다.

김호정 기자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컷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QR 코드: [QR Code]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우리말 바꾸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에 대해

‘그런데’는 앞과 상반되는 말을 할 때도 종종 쓰인다. “그가 웃었다. 그런데 나는 슬펐다”처럼. ‘는데’도 ‘그런데’와 비슷한 구실을 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두 문장을 이어 준다. “그가 웃었는데 나는 슬펐다.”

이렇게 상반되는 상황의 ‘그런데’와 ‘는데’에는 ‘도’를 붙이는 일이 흔하다. 그러면 이 말들이 강조된다. 마치 목소리를 높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가 웃었다. 그런데도 나는 슬펐다.” 이처럼 ‘도’가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진다.

‘그럼에도’도 비슷하다. ‘그런데도’나 ‘는데도’처럼 ‘그럼에도’도 뜻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런데도’와 ‘는데도’가 일상의 대화에서나 글에서도 자유롭게 쓰인다면 ‘그럼에도’는 주로 글에서 쓰인다. 이 말들은 ‘불구하고’와 때때로 어울리는데, 이때는 거의 글에서 나타난다. “그가 웃었다. 그런데도(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펐다”는 주로 글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이다. 말로 할 때는 굳이 ‘불구하고’를 넣어 문장을 늘리지 않는다. 글에서도 ‘불구하고’를 넣으면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문장의 간결성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간결성을 넘어 하나의 관용구가 됐다. ‘불구하고’를 지우면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불구하고’를 빼면 문장은 더 간결해진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한 성찰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템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분권적, 참여형 교육방식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이미 대한민국의 대학은 일률적인 거대한 관제 대학같이 변해가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창의적인 사고와 독립적인 연구를 장려하며, 학문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환경은 미국에 젊은 인재가 모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미국 정신의 중심에는 탐험, 혁신, 새로운 개척지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특징이 어지는 개척 정신이 있다.

이 정신은 서부 개척, 산업 혁명, 오늘날의 AI 등 첨단 과학 기술 산업과 우주 탐사를 촉진했다. 기업이 정신은 오픈에이아이(OpenAI),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시키는 혁신 문화를 형성했다. 미국 정신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이다.

미국 13개주 대표들이 모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지 246년이 지났다. 나중에 미국이 된 북미대륙은 원래 기회의 땅이었다.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하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 이유로 일부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몰려왔고 일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청교도들로 지난 1620년 매사추세츠 지역에 정착했다. 그보다 더 일찍 정착한 사람들은 1607년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미 대륙에 처음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후 400년 이상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풍요롭고 보다 더 나은 삶을 꾸리기 위해 애썼다.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영국 왕실과 영국 정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대표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 후 7년에 걸친 독립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고 중상주의의 역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독립으로 모든 사람의 형편이 똑같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혜택은 백인 남성에게 돌아갔다. 여성과 흑인노예들은 독립전쟁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패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독립은 이뤘지만 많은 노예들의 희망대로 노예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또 여성도 완전한 법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 그로부터 80년이 더 지나고서 노예제는 폐지됐고, 여성은 40년이 더 지나 투표권을 갖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통치는 끝나고 미국이 탄생하고 모든 이를 위한 자유의 창문이 열렸다.

개척 정신, 자유에 대한 헌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단지 미국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더 밝고, 존중받는 공정한 미래로 나아가갈 수 있는 보편적인 염원이자 원동력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보루이고, 북한 주민들에겐 희망의 땅이다. 자유민주 시민으로 자긍심을 갖자.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활짝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독자마당

대한민국의 미래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지난 2020년 군 여론조사 은폐·축소 지시 혐의로 기소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 재판 중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다.

비록 그가 재판정에서 한 발언이었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27일 휴전 협정까지 1129일(3년 1개월 2일)간 지속했다. 수도 서울이 북한군 수중에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여러 국가가 대한민국에 도움을

줬다. 미국을 포함 16개국이 군을 파견해 직접 참전했다. 6개국은 의료지원팀을 보냈고, 40개국이 물자 수송 지원에 나섰다.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한 나라도 6개국이나 된다. 당시 대한민국은 존재감이 크지 않은 나라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지원에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현재는 어떠한가? 남북이 휴전 협정을 맺은 지도 71년이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반면 6·25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한국의 세대는 풍요로운 시대에 안주하는 모습이다.

얼마 전 신문 지상에서 너무나 반가운 뉴스

하나를 봤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800달러를 기록,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6·25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6달러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단기간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다.

대한민국의 급성장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한 기적이며 급자람이다.

그러나 아직 서민들은 이런 성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좀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노영자·꽃힐렌치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28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aquaviwater.com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49



미네랄수 \$179

알칼리수 \$219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3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알렉스차
교통사고/상해/레몬법 변호사

Q 레몬법의 오해와 현실

▶문= 레몬법은 새 차에만 적용되나요?
▶답= 아니요. 캘리포니아 법은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 적용되는 중고차에 대해서도 보호를 확대합니다. 즉, 아직 보증이 적용되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주 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일정 횟수의 수리를 거쳐야 하나요?
▶답=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전에 수리해야 하는 특정 횟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차량

에 제조업체가 합리적인 횟수 내에 고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이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리 횟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함의 성격과 결함이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합리적인 시도 횟수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리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나 승객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위험으로 이

어질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수리 시도가 한두 번만 실패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만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함의 경우 주에서는 다소 더 많은 수리 시도를 허용하지만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횟수를 허용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보증 수리를 위해 수리점에 30일 이상 머물렀던 차량을 수리 시도 횟수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레몬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리 시도가 단 한 번 실패하더라도 특정 상황, 특히 심각한 안전 문

제와 관련이 있거나 차량을 너무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은 차량의 기계적 문제만 다루나요?
▶답=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레몬법이 기계적 결함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레몬 규정은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크게 손상시키는 모든 결함이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문제, 최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문제, 심지어 합리적인 수리 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지속적인 냄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정
재산/상속/트러스트 변호사

Q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다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조항 같은 불법체류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된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

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

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상혁
은퇴 종합플래너

Q ‘지원할 대학’은 여름방학 때 정하라

▶문= 올해 대학입시를 치를 라이징 시니어들은 지원 대학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답=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라이징 시니어들이 그동안 막연히 희망했던 대학에서 지원할 대학으로 범위를 좁혀야 하는 시기이다. 구체적인 칼리지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어떤 학생은 방학기간 관심 있는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며, 해당 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학교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다. 미국에는 수천 개의 대학이 있다. 따

라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내가 원하는 전공이나 부전공이 있는지, 재학생들에게 유급 인턴십이나 리서치 기회를 제공하는지, 외국 유학 프로그램이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교내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리스트를 작성한다. 대학의 ‘명성’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은 명심해야 한다. 연방 교육부(DOE)가 펠그랜트 등 연방정부 재정보조를 받으면서 아이비리

그 대학을 다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 아이비리그 대학 중 유엔, 프린스턴 등 2곳만 졸업 10년 후 중간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명성 있는 대학을 나와야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업세계에서 통하는 ‘스킬’이기 때문이다.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디테일도 중요하다. 클래스 사이즈, 캠퍼스 라이프, 스포츠, 종교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서 ‘완전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클래스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의실에 수백 명이 모이는 대규모 클래스가 나에게 맞을 수도, 학생 간 활발한 토론이 가능한 10~20명 규모의 작은 클래스를 선호할 수도 있다. 또는 캠퍼스 사이즈, 교내 식당 등이 중요할 수도 있다. 2025년 가을학기 입시용 커먼 앱(Common App)과 UC 지원서는 오는 8월 1일 오픈한다. 라이징 시니어들이 여름방학 동안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완성하고 커먼 앱 메인 에세이와 UC 에세이 작성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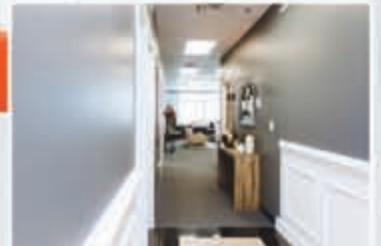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July 15,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비수기가 뭐냐’ 던 토종 패션플랫폼, 중국 쉬인 경계령

2030 여성 고객을 겨냥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이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몸집이 가벼운 중소 브랜드와 손잡고 급변하는 취향에 빠르게 대응하면서다. 하지만 글로벌 1위 패션기업으로 성장한 ‘중국판 유니클로’ 쉬인이 한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내 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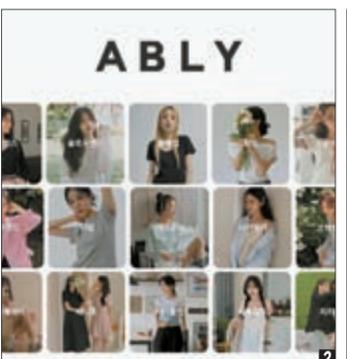
소비 침체로 유통업계 대부분이 성장 정체에 고만하지만,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 플랫폼들은 호실적을 기록 중이다. 무신사의 온라인 편집숍 29CM는 올해 상반기(1~6월)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29CM를 담당하는 무신사 관계자는 “연내 거래액 1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29CM 누적 회원 수는 850만 명으로 늘었고, 월평균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 금액)가 18만3000원을 넘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는 최근 디자이너 브랜드 판촉을 위한 ‘화요쇼룸’으로 짝짱한 재미를 보고 있다. 화요쇼룸은 격주로 2~3개 패션 브랜드를 선정해 이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지난달 화요쇼룸 첫 회에 소개된 디자이너 브랜드 ‘아위’는 기획전이 진행된 3일 동안 매출이 11배로 뛰었고(전 주 대비 1023% 증가), 함께 소개된 ‘몽돌’ 역시 매출이 418% 증가했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에이블리는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몸집을 키워 사용자 수 기준 한국내 1위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지난 5월 월간활성사용자수(MAU) 833



2030 여성 대상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1 격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집중 홍보하는 지그재그의 ‘화요쇼룸’ 2 지난 3일 하루이용자수(DAU) 200만 명 돌파를 알린 에이블리. 3 무신사의 여성 대상 편집숍 29CM. 4 중국 ‘쉬인’은 8일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연합뉴스]



‘중국판 유니클로’의 침공

2030 여성 대상 온라인 패션플랫폼 경기 침체에도 잇따라 호실적 기록 에이블리, 3조원 유니콘 등극 ‘눈앞’ 쉬인 공략 본격화에 위기감 커져

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하루이용자수(DAU) 200만 명을 돌파했다. 에이블리는 서울 동대문패션시장을 기반으로 저렴한 보세옷을 세대별, 취향별로 분류해 소비자에게 추천·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2595억 원, 영업이익 33억원을 기록하며 출범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로부터 3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약 2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앞장섰다. 충성도 높은 2030 여성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패션 플랫폼들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처지다. 중국의 글로벌 패션 플랫폼 쉬인 때문이다. 이날 쉬인은 서울 성수동에 한국내 첫 팝업스토어를 열고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오는 14

일까지 7일간 운영되는 이 매장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쉬인의 주력 상품과 서브 브랜드 데이지의 제품이 전시 중이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진출한 쉬인은 지난해 순이익의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를 거두며 경쟁 브랜드인 자라, H&M의 실적을 넘어섰다. 쉬인은 지난 달 데이지의 첫 글로벌 엠베서더(홍보대사)로 배우 김유정을 선정하며 “한국 고객의 요구(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성비 높은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초저가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접수한 쉬인이 중소 브랜드와 함께 성장한 한국내 패션 플랫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중국 플랫폼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기준치의 68배 넘게 검출됐다. 김경미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노승훈 전직 검사
로버트 캐들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중국, 팬데믹 이전보다 재고 11% 증가... 산업 호황 이면의 그림자

데자뷰(Déjà Vu)다. 미국이 1980년대 후반 일본과 무역 전쟁을 벌이며 외쳤던 “과잉 설비”와 “과잉 생산”이란 말이 한 세대(30여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번 상대는 중국이다. 과잉을 외치는 쪽은 미국과 유럽 등이다.

중국의 과잉 설비·생산이 국제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어젠다로 떠오른 계기는 올해 4월 이뤄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전후다. 옐런은 중국 방문에 앞서 “우리는 태양전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 분야에서 과잉 설비와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방중 기간 내내 과잉생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치 경제학과 교수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태도마저 내비쳤다. 이후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문제 삼고 나섰다.



올해 4월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왼쪽)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중 '제조업 고혈당' 걱정

옐런의 비판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요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성장 목표(5%)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대신 산업 생산, 특히 첨단 제조업 육성을 성장 엔진으로 선택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움직여 첨단 제조업 쪽으로 자금을 몰아주다시피 한다. 시중은행은 부동산 부분 대출(그래프 재고 참조)을 최근 1년 사이에 1조 위안(약 186조원) 정도 회수했다. 반면에 중국에서 녹색 대출이라고 부르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출은 같은 기간에 8조 위안 늘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통화정책 야전사령부’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중국 제조업 혈당이 높

아지면(What if China Manufactures a Sugar High?)’이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뉴욕 준비은행은 금융기관이어서 그런지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만을 우려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나가 중국의 제조업 고혈당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다. 이런 중국의 제조업이 단말(금융 지원)에 취해 활력을 띠면 원자재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중국발 원자재 수요 급증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부추겨 결국 미국 내 물가를 압박한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025년에 인플레이션이 0.5% 포인트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뉴욕 준비은행의 예측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미국

미국이 중국 제조업 고혈당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관세 장벽을 높이 쌓고 위안화 가치가 오르도록 하는 방법뿐이다. 80년대 중반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압박해 당시 엔

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했다(플라자합의), 한술 더 떠 미국은 일본을 몰아붙여 ‘과잉 생산과 수출에 대한 자율 규제’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샷 수석연구원은 몇해 전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80년대 미국은 안보 우산을 내세워 일본과 독일을 압박해 플라자 합의와 자발적 규제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장벽을 쌓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는 멕시코와 캐나다, 바하마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뾰족한 수가 없을 때 목소리만 커진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과잉 설비, 과잉 생산”이란 목소리가 유독 크게 울린다.

내수 부진에 쌓이는 재고

그 바람에 중국의 제조업 고혈당이 실제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은 뒷전이다.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생산은 과잉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과 견줘 3% 정도 늘었을 뿐이다. 보고서를 쓴 루이스 루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일시적인 과잉생산으로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놀라운 사실은 팬데믹 이전보다 산업생산이 단 3% 늘었을 뿐인데, 재고는 11%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의 물류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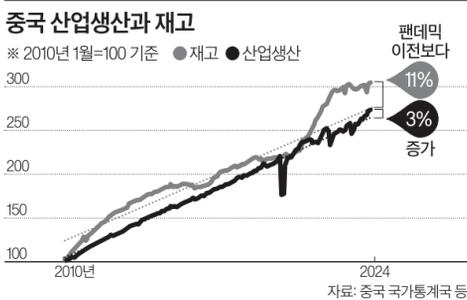
국내총생산(GDP)을 계산할 때 재고는 투자로 잡힌다. 그만큼 성장률이 높아진다. 중국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아 생산설비보다는 기존 설비를 동원해 재고를 늘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4배 가까이 높은 첫 번째 이유로 중국 내수 부진을 꼽는다. 그리고 중국산 수출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재고 증가의 이유라고 한다.

중국 기업의 속앓이

사실 중국 경제가 과잉 설비·생산 증상을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재고를 누적시키고 있는 수요 부족을 더욱 우려한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등 실적 지표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전체 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21년 이후 가파르게 떨어져 6% 이하로 내려앉았다.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더 낮아져 5% 수준이다.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인 자산 대비 수익률(ROA)도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역사적으로 재고 누적이 낳은 최악의 결과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현재 재고 누적이 최악으로 치닫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내수가 부진한데 수출마저 시원찮아지면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시진핑이 부동산을 대신해 성장엔진으로 택한 친환경·최첨단 산업에서 또 하나의 과잉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강남규 국제경제 선임기자



백우진의 돈의 세계

유학생과 인구 총력

내가 지난 1학기 대학에서 가르쳤던 ‘취재보도론’ 과목 수강생 64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8명이었다. 중간·기말고사에서 고득점을 받은 유학생 중 세 명이 미얀마에서 왔음을 알게 됐다. 이들로부터 미얀마어와 한국어가 어순 등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한국내에서 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 중 미얀마

출신의 비중은 작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중국이 47%를 차지하고 베트남이 21%, 우즈베키스탄 7%, 몽골 5% 순이다. 이들 나라에서 온 학생 중에도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같은 통계에서 12만924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다년간 공부한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일자리를 잡는 경로를 활성화하면 어떨까? 해외 교민 중에는 유학 후 현지에 정착한 경우가 많다.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

도 있지 않을까?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내 노동시장의 연계는 미흡하다. 유학 후 한국내에서 취업하는 사람은 8.2%에 불과하다(2022년). 학위 취득 등을 거쳐 숙련 비자를 받고 한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지난해 말 4만4993명에 그쳤다. 또 학위는 취업과 급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낸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유학생 출신 외국인력의 임금이 비유학생 출신 외국인력의 임금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개선

할 점으로 이 교수는 “유학생이 인문·사회 등 계열 학과에 집중되는 현실”을 들었다. 그는 “한국내 노동시장 수요와 잘 맞는 학생을 유지하자”고 제안한다. 또 숙련과 비숙련으로만 나눈 외국인 체류 자격을 세분화하자고 말한다.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서 유학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 그러나 유학생 고용 확대는 애를 만한 가치가 있다. 유학생 약 13만명은 지난해 출생아 23만명의 반이 넘는다는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취)대표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손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NEW</p> <p>스시 식당</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NEW</p>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p>	<p>NEW</p> <p>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상가</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사무실</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상가</p> <p>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p>
<p>창고</p> <p>전기사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튼, 버지니아</p>	<p>사무실</p> <p>워싱턴 디씨,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p>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체

주재원 랜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맹목적 투자 위험... 내 목표·유형 파악이 먼저

내게 맞는 투자

집중과 분산, 능동과 수동, 전술과 전략투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본 투자방법이다. 이들은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다 활용될 수도 있고 선별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어떻게 언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보자.



투자 목적과 유형을 모르면 투자 방법도 어렵다. 자신의 목표를 파악해 내게 맞는 투자를 고르는게 바람직하다.

▶집중투자자와 분산투자

분산투자는 여러 투자자산 유형에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과 채권이다. 주식과 채권, 현금자산에 투자되는 비율을 달리해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때 배치비율은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보수적일수록 채권과 현금의 비중이 커지고 공격적일수록 주식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이에 반해 집중투자는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한 가지 자산 유형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수익률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고, 안전성과 소득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는 채권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넓은 의미의 집중투자다.

좁은 의미의 집중투자는 주식형 자산에 대한 집중투자를 개별 종목을 통해 실행한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s) 등을 활용하기보다 개별 주식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채권형 펀드 등 대신 개별 채권을 선별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분산투자는 뮤추얼펀드나 ETFs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펀드나 ETFs 자체가 이미 특정 자산 유형에 대한 분산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조합을 통해 분산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분산투자가 늘 펀드나 ETFs만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집중투자 주식

포트폴리오와 역시 개별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집중투자 채권 포트폴리오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내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의 분산을 도모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산효과를 위해 여기에 전통적 분산 포트폴리오까지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집중과 분산은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과 투자목적, 선호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 이들 다양한 방식을 잘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 포텐셜은 오히려 높일 수 있게 된다.

▶능동투자자와 수동투자

수동투자, 이른바 '패시브(passive)' 투자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쉽게 말해 인덱스(index) 투자다. 인덱스 투자는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의 하나인 인덱스 펀드나 ETFs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 그대로 주요 주가지수에 투자하면서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투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는 특히 지난 10여년간 성공적이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성적도 좋았기 때문이다.

반면 능동투자, 즉 '액티브(active)' 투자는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투자에 해당한다. 펀드 매니저들이 저마다 자기 펀드의 투자 목적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을 선택, 관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전문가들은 다시 능동투자가 더 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시장 환경이 어렵거나 불투명하면 능동투자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과 분산은 역시 능동투자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고, 수동투자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능동투자를 통한 집중이라면 성장주식형 펀드 하나에 투자할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개별 주식을 선별해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능동적 집중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능동투자를 통한 분산은 시장의 다양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로 포

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경우 등을 예로 생각해볼 수 있다. 주가지수, 채권지수를 활용해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수동적 집중과 수동적 분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략투자자와 전술투자

전략투자자와 전술투자 역시 집중과 분산, 능동과 수동이 모두 가능하다. 전략투자는 기본적으로 '바이앤홀드(buy and hold)'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투자자 대부분이 익숙한 방식이다. 반면 전술투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종목이나 자산 유형을 바꿔가며 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능동투자자와 수동투자 모두 전략적 투자일 수도 있고 전술적 투자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능동과 수동투자에 전략투자가 결합된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재정전문가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이 이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전술투자 활용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2000년 이후 경험한 두 차례의 큰 폭락장이 전술투자에 대한 수요를 늘어나게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투자방식의 실제 적용

많은 이들이 투자목적은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히 투자한다. 투자

목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투자방법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인지 수익이 우선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히 분산투자를 하거나 막연히 집중투자를 할 수 있다. 수동·능동 투자나 전략·전술 투자 역시 투자환경과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인덱스 펀드나 ETFs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수동투자는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높아지면 감정적 투자를 초래하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수동투자는 일반적으로 전략투자 방법과 결합하지만 이를 전술투자자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장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에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전략적 '바이앤홀드'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분산보다는 주식형 집중투자가 역시 성적이 좋을 것이다. 최근까지가 그런 투자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락장을 만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능동적인 전술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시장은 늘 등락의 순환을 타기 마련인데 이를 무시한 투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까지 남은 투자기간이 10년 안팎이거나 이미 은퇴한 경우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동적 전술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하고 싶다. 2007년발 금융위기를 전후해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자금의 절반이 '갑자기' 사라지면 계획했던 은퇴는 요원해질 수 있다.

내 투자목적, 투자환경,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능동·수동, 전략·전술, 집중·분산 투자를 적절히 결합하며 탄력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어야 오래 가는 성공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 검토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상법



이 승 호
변호사 Lee & Oh

비즈니스 거래 시 확인할 것

가장 분쟁 많은 부분 바로 매상 차이
세금보고서와 회계자료 꼼꼼히 확인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즈와 매상이다. 매상과 리즈가 비즈니스의 가치를 결정되게 된다.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에스크로에서 매상 확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리즈에 관한 확인과 내용 점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리즈계약서의 경우, 단순히 리즈의 기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리즈 계약서는 법률 계약서이므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리즈 렌트비가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인 경우가 많아 더 중요하다. 리즈를 하는데 있어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즈 기간이다. 현 비즈니스 오너가 가진 리즈의 잔여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옵션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 옵션 행사의 방법과 제한을 확인하고 특히 옵션이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옵션이 있는 경우는 렌트비 산정 방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옵션 이후의 렌트비가 시장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테넌트와 건물주와의 분쟁의 소지가 높다. 또한, 건물주가 테넌트와의 리즈 계약을 연장하는 않으려는 경우, 기존의 렌트보다 훨씬 높은 인상된 렌트를 옵션 기간에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리즈를 협상할 때, 옵션 기간에 렌트비도 확정하는 것이 테넌트에게 유리할 수 있다. 테넌트 옵션은 테넌트를 위한 옵션이므로 옵션의 횟수도 많을수록 유리하게 된다.

셋째, 고정된 렌트가 아닐 경우 인상분 결정에 관한 조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넷째, 리즈 렌트 외에도 테넌트는 공동구역을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리즈계약서가 많다. 종종, 건물주 측에서 공동구역비용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부담하는 공동구역비용의



부담액의 비율을 리즈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매상의 차이이다. 일부 바이어는 셀러가 제시하는 매상을 일방적으로 믿거나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미숙함을 보인다. 에스크로가 종료된 후에 매상 차이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물론, 매상 차이에 따른 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송의 기간과 비용과 정확하지 않은 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열기 전 가능하면, 구입하려는 비즈니스의 매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에스크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상 확인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매상 확인을 할 때는 세금보고서와 회계자료 또는 직접 일정한 기간 매상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회계자료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기간 매상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꼼꼼히 해야 한다. 추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셀러가 제시하는 매상에 대해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매상 확인과 수익에 대한 점검은 본인과 회계사 모두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엄 기 욱
CPA·Mountain LLP

회사법인 형태 및 세금

주식회사,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보고
회계연도 끝나는 날의 3번째 달 15일까지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어, 주 정부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 주의 세입부(DOR)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주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해외 지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처

음 설립된 주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법인 유효 등기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 신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 요건은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Corporation Name),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Bylaws), 자본금(Capital) 등

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물적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에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 세금(business tax)을 신고하는 법인 형태는 C-컴(C-법인·일반법인), S-컴(S-법인·소규모법인) 전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비상장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주식회사는 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 보고가 면제되지 않는 회사라면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연방정부와 관할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

고해야 하고, 청산하는 회사도 청산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양식 7004를 보고하면 6개월간 자동으로 세금보고일이 연장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 신고일이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더 작은 세율에, 그리고 고소득일 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얼마의 소득이던 동일하게 총소득에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S-법인과 같은 소유권 통과(pass-through) 회사들은 회사 소유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불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 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특별함의 추구가 기본이 된 사회



과잉 히스테리 사회, 단독성들의 사회
안드레아스 레크비츠 지음
윤재왕 옮김
새물결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 트레비 분수 주변이 지난 6월 말 관광객으로 붐비는 모습. [AP=연합뉴스]

독특하고 남다른 걸 추구한다. 여행이 대표적이다. 단체 관광객으로 붐비는 유명 여행지 대신 남들이 잘 안 가는 색다른 장소나 특별한 체험을 찾는다. 음식도 그렇다. 세계 각지의 독특한 식재료나 조리법, 친환경 재료나 로컬푸드를 비롯해 특별함이 있는 메뉴를 먹거나 요리한다.

언뜻 요즘 젊은 세대 얘기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이 책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사회와 다른 오늘날의 사회를 특징 짓는 면면이다. 책 제목의 '단독성'은 독일의 사회학자·문화이론가이자 대학 교수인 저자가 지금의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단독성은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자, 사회문화적으로 생산된 독특성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특하지 않았던 것도 독특해질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1940년대부터 생산된 베스파 스쿠터가 90년대에 향수를 불러내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거나, 표준화된 손기술로 여겨졌던 미용사가 나와 그 함의가 격상된 것도 그 예다.

이처럼 단독성을 갖게 되는 것을 저자는 '단독화'이자 '문화화'로 부른다. 이렇게 되면 그 기능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함축된 의미가, 그래서 대중이 부여하는 정서와 감정이 중시된다. 저자는 이런 변화를 추동한 두 힘으로 지식

경제·문화경제 등 이른바 창조경제의 부상과 디지털 등의 기술을 꼽는다. 책은 이 두 영역에 더해 노동·라이프스타일·정치까지 각 장을 할애해 단독성의 양상과 의미를 풀어낸다.

트렌드 보고서가 아니라 학술서로 분류될 책이지만, 책 곳곳에 지금의 현상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흥미로운 통찰이 여럿 번뜩인다. 여행·음식·주거 등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신중간계급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 대신 '유래이션'으로 설명하는 것도 그렇다. 오래된 도시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현재·미래와 달리 과거를 퇴행적으로 보던 산업사회의 관점과 비교하면 그 새로움이 뚜렷해진다.

대중의 주목을 얻기 위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소수의 작품만이 성공하는 승자독식과 과잉 생산 등 기존에 예술이 지닌 특징으로

설명하는 대목도 색다르다. 저자에 따르면 단독성의 사회는 가시성·퍼포먼스가 중시되는 사회, 기존의 산업사회가 예측가능성을 통해 최소화했던 실망을 생성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저자는 노동에서도 형식상의 자격증보다 독특함을 조합한 프로필이,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 대중에게 드러나는 가시적 퍼포먼스가 중요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청소년들의 총기난사 사건 같은 광란을 테러와 더불어 "그 자체가 목적인 폭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설명하는 대목은 최근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한 폭력적 사건들의 면면도 떠올리게 한다.

이 책의 큰 특징은 현상과 트렌드를 개별적으로 주목하고 분석하는 대신 거시적 사회 구조의 변화로서 꿰뚫어 보는 점이다. 저자는 폭넓은 의미의 근대 가운데 19세기 이후 대량생산과 표

준화·기능성 등을 중시했던 산업사회가 단독성이 특징인 '후기근대' 혹은 '포스트산업사회'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대졸 신중간 계급을 주목하는 점도 눈에 띈다. 책에 따르면 1950~70년대의 30년간 서구는 '평준화된 중산층 사회'였다.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데 대학 졸업장은 결코 필수품이 아니었다. 한데 이제는 달라졌다. 저자는 교육의 팽창, 즉 대졸자가 크게 늘면서 독일의 직업 교육 수요나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 같은 중간 교육의 역할과 의미가 위축되고 쇠퇴했다고 전한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독일의 직업 교육을 대비하곤 했던 통념도 흔들린다. 원제 Die Gesellschaft der Singularitäten: Zum Strukturwandel der Moderne.

이후남 기자

유럽도, 조선도 이 '책'에 끌렸다



18세기의 세책사
이민희 지음
문학동네

사대부 명망가 자제인 문장가 윤서(한석규)는 저잣거리에서 난생처음 음란소설을 접하게 됐다. 알 수 없는 흥분을 느낀 윤서는 추월색이라는 필명으로 직접 음란소설을 쓰기로 한다. 이 분야의 일인자가 되고 싶었던 윤서는 가문의 숙적 광헌(이범수)에게 소설의 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탄생한 음란소설 '흑곡비사'는 장안의 화제가 된다. 2006년 개봉한 김대우 감독의 영화 '음란서생'의 내용인데, 소설책을 구하려고 소동을 벌이는 조선 시대 여성들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근세에 안방의 부녀자들이 경쟁하는 것 중에 능히 기록할 만한 것으로 오직 패설이 있는데, 이를 좋아함이 나날이 늘고 달마다 증가하여 그 수가 천백종에 이르렀다. 왜가 이것을 깨끗이 베껴 쓰고 빌려주었는데, 번번이 그 값을 받아 이익으로 삼았다." 조선 영·정조 시기 문인 체제공(1720~1799)이 쓴 '여서사서'(『여서사』의 서문)의 일부다. '패설'은 지금의 소설에, '세책가'라고도 하는 '왜가'는 도서대여점에 해당한다. 영화 '음란서생' 속 장면을 옮겨놓은 듯하다.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일, 또는 그 책을 '세책(貰冊)'이라 한다. 요즘은 드물지만 아주 오래전 일만도 아니다. 1990년대까지 아파트 단지마다 도서대여점 하나씩은 꼭 있었다. 또 도서대여트럭이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체제공의 '여서사서'는 그가 살았던 18세기에도 세책이 '안방의 부녀자들이 경쟁'해 '기록할 만한' 정도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다고 전한다. 바로 고전문학 연구자인 저자가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세책은 18세기 조선에만 국한됐던 현상이 아니었다. 영국·아일랜드 등 서쪽으로 유럽 끝부터 일본 등 동쪽으로 아시아 끝까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저자는 생생한 기록과 사료로 18세기 세책이 유행한 배경과 경과를 국가별로 상세히 소개한다. 그 과정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책을 통해 주로 책을 구하는 쪽이 여성일 수밖에 없는 차별의 메커니즘도 보여준다.

장혜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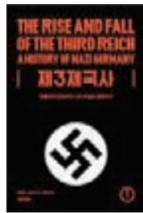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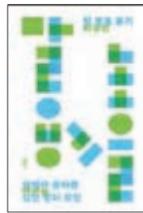
삼성, 유럽에서 어떻게 명품브랜드가 되었나? (김석필 지음, 아트레이크)=2005~2013년 삼성전자 영국법인장, 프랑스법인장, 유럽총괄사장을 지낸 저자가 삼성의 스마트폰은 유럽 점유율 1위가 되고 가전 제품은 명품으로 인정받은 비결을 소개한다. 영국은 프로 축구와 왕실 문화를, 프랑스는 미식과 예술을 활용한 창조적 마케팅 전략이 담겨 있다.



세계 끝의 버섯(애나 로웬하움트 칭 지음, 노고은 옮김, 현실문화연구)=부제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의 인류학자인 저자는 7년에 걸쳐 곳곳에서 채집·분류 노동자, 기업가, 미식가 등을 고루 만나며 송이버섯 산업을 살폈다. 생태·경제·삶 등을 아우르는 사유와 분석이 학술서가 아니라 문학적인 에세이처럼 펼쳐진다.



제3제국사(윌리엄 L 사이러 지음, 이재만 옮김, 책과함께)=부제처럼 '히틀러의 탄생부터 나치 독일의 패망까지'를 다룬 대중 역사서로 이름난 책. 미국 언론사 소속으로 1925년부터 유럽에서 일했고, 히틀러 집권 이듬해부터 나치 독일을 취재한 저자가 1960년 출간해 이후 1년 만에 200만 부 넘게 팔렸다. 전체 네 권의 우리말 첫 단역.



말 놓을 용기(이성민 지음, 민음사)=한국 사회의 수직적 관계를 답습하는 대신 수평적 소통을 이루려는 시도를 존댓말로, 반말도 아닌 '평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실행하려는 이들이 있다. 평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포함해 평어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여러 사람의 추천사를 담았다. 부제는 '관계와 문화를 바꾸는 실천 평어 모험'.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랄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관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격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빌런 총리’ 김희애 ‘20대 영혼’ 이정은, 연기 틀을 깨다

요즘 안방극장에선 50대 여배우들의 연기 변신이 화제다. OTT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각각 시리즈 1위를 달리고 있는 ‘돌풍’(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김희애(57)와 ‘낮과 밤이 다른 그녀’(JTBC)의 이정은(54) 얘기다. ‘낮과 밤’은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서도 2위로 ‘돌풍’을 바짝 추격중이다. 30여년간 한번도 주인공을 놓쳐본 적 없는 김희애와 만년 조연 끝에 주인공을 꿰찬 이정은의 연기 대결이 ‘차력쇼’ 급이다. 수십년간 상반된 이미지로 고착화된 두 여배우가 각자의 틀을 깨려는 시도도 흥미롭다.

넷플릭스 정치 활극 ‘돌풍’ 김희애 역지스런 여성 미화 벗고 젠더 대결 이정은, JTBC ‘낮과 밤...’ 2인 1역 50대에 활짝 핀 발랄한 주연 연기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며 정의를 대변하는 교조적 캐릭터가 아니라 차별화된다. ‘퀸메이커’만 해도 권모술수의 달인 황도희(김희애)가 어느날 대오각성하고 부패한 재벌가 사위에 맞서 정의로운 여성 시민운동을 시장으로 키워냈다. 반면 끝까지 빌런으로 남는 정수진은 역지스런 여성 미화 문법을 벗었다. 전대협 회장 출신 남편 때문에 정경유착에 휘말린 서사가 있고 과거 시위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구차한 변명은 없다. 그저 살아남으려다 보니 어느새 자신을 고문하던 괴물보다 한술 더 뜨는 괴물이 된 것뿐.

사실 막장드라마에는 더한 악녀가 많다. 정수진이 달라 보이는 건 50대를 훌쩍 넘겨서도 아름다운 여성적 매력으로 승부해 온 김희애의 변신이라서다. 그런데 ‘옴므파탈’의 대명사 허준호처럼 매력적인 악역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는 “미모를 앞세운 멜로적인 연기 안에 머물던 김희애가 최근 들어 정치극에서 복잡한 속내를 가진 사회적인 역할에 도전하고 있어 흥미롭다”면서 “다소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건 오랜 세월 고

착화된 연기 스타일을 벗기 어렵기 때문인데, 머리를 자르고 의상을 바꾸며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약역이라고 독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능청스런 포용력도 보여줘야 한다. 김희애는 아직도 너무 예뻐서 문제다. 나이 들어 가면서 미모를 버리는 역할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여년 조연에 머물다 50대에 마침내 로맨틱코미디 여주인공에 등극한 이정은은 정반대다. 20대부터 도맡던 할머니 연기를 벗어나 점점 젊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낮과 밤’은 8년째 취준생인 20대 이미진(정은지)이 어느날 갑자기 낮에만 50대 임순(이정은)으로 변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서 시니어 인턴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사랑도 얻는 이야기. 이정은은 아이돌 출신 정은지와 2인 1역을 맡아 주름 가득한 미소로 ‘깨발랄’ 20대 영혼을 연기한다. 아이돌 댄스에 급식체 외계어, 꽃미남·핫가이와 러브라인까지 하드캐리 중이다. 정은지와 투톱이지만, 로코 여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외모에도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이정은에게 몰입도가 높다.

‘이미진 겸 임순’은 20대와 50대의 몸이 마치 삼쌍둥이처럼 하나의 인격을 나눠 갖는 희귀한 캐릭터다. 웹소설

식 로맨틱판타지 코드에 스릴러까지 가미된 플롯이라 아직 정체가 미스터리지만, 분명한 건 외모와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고 있다는 점이다. MZ 답지 않게 자기 업무도 아닌 일로 체력 고갈이 되면서도 ‘일하니까 행복하다’며 노동을 예찬하기도 하고, 50대라도 젊은 영혼을 유지할 때 매력 있다는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어쩌면 50대에 활짝 핀 여배우 이정은의 메타포로도 보인다.

“주연·조연으로 코스 달랐지만 발전적” 이정은의 발자취도 의미 있다. 91년 연극으로 데뷔, 뮤지컬 ‘지하철1호선’ ‘빨래’ 등에서 대체불가 할머니 역으로 입지를 굳혔지만, 봉준호 감독에게 영화 ‘옥자’(2017)의 목소리 연기로 발탁되기 전엔 미디어에 실재하지 않았다. 40대 후반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2018)의 함안택, 영화 ‘기생충’(2019)의 문광 같은 개성적인 씬스틸러로 각인되더니, 지난해 어벤저스급 주인공 군단이 나왔던 ‘우리들의 블루스’를 거쳐 ‘낮과 밤’으로 ‘썸’ 주인공이 됐다. 무대에서 그에게 기대하던 욕쟁이 할머니와 미디어에서 기대하던 씬스틸러의 굴레를 모두 벗고 새 옷을 입은 셈이다.

김희애와 이정은, 두 사람이 개척하고 있는 길은 50대 여배우의 진화상에 다름 아니다. 과거라면 미모 또는 웃음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고수하다 그 길이 막히면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여배우들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영미 평론가는 “미디어가 그리던 여성 캐릭터가 다양해졌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해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두 사람의 코스는 전혀 다르지만, 둘 다 발전적이다. 나이 든 여배우들이 단절 없이 각자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을 길을 뚫고 있다는 건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유주현 기자

OTT 넷플릭스·티빙서 각각 시리즈 1위 김희애는 ‘편지’(2014) 등 ‘권력 시리즈’로 유명한 박경수 작가의 정치활극 ‘돌풍’에서 대통령 박동호(설경구)와 숨막히는 고지전을 펼치는 총리 정수진 역인데, 젠더 대결 구도가 신선하다. 직업물에서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 주인공이 기득권층 남성 빌런을 응징하는 뺨한 구도를 뒤집은 것. 드라마 첫 주연이라는 설경구가 ‘백마 타고 온 초인’이 되어 정의 구현에 나서고, 김희애가 이를 필사적으로 막는 빌런이 됐다.

김희애는 30년 넘게 늘 화제작에서 강렬한 여성 캐릭터를 각인시켜 왔다. 90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아들과 딸’에서 남녀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후남이로 동시대 여성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톱스타로 뛴다. 2000년대 ‘내 남자의 여자’에선 자신의 미덕이던 정순가련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욕망의 화신으로 변신했으며, ‘밀회’(2014)에서 유아인과 20년 연상연하 러브스토리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불륜 남편을 처절히 응징한 ‘부부의 세계’(2020), ‘퀸메이커’(2023)의 냉철한 선거 전략가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성상을 대변해 왔다.

‘돌풍’의 정수진은 몇 년 새 안방극장을 점령한 ‘썸 언니’ 계보를 잇고 있지만, 남성중심



QR코드를 찍으면 기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돌풍’의 김희애. 2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이정은. [사진 넷플릭스·JTBC]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p>\$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p>	<p>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채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로케이션, Move-in Ready</p>	<p>\$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p>	<p>\$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굿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p>
---	---	--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X-ray, 재활운동 시설 안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p>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p>	<p>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p>	<p>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p>
--	---	--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매드맥스' 영화에 뜬금포 명화... 아름다움을 동경하다

(퓨리오사:매드맥스 사가)

조지 밀러 감독의 걸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가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후 9년만에 나온 같은 감독의 프리퀼이 '퓨리오사:매드맥스 사가'(2024)다. 흥행은 전작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국내 누적 관람객 수는 개봉 7주차인 5일 기준 160만여 명, 전작 '매드맥스...'는 약 400만 명.) 팬데믹과 OTT 시대의 도래를 거치며 영화 관람 환경이 변한 탓이 크겠지만, 평론가들과 관객들이 대체로 호평을 하면서도 전작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워터하우스, 신화 아름답게 묘사해 유명 일단 프리퀼의 태생적 약점으로 새로운 요소가 많지 않다. 핵전쟁으로 인류 문명이 붕괴된 후의 광활한 황무지에 때때로 보이는 기묘한 시적 아름다움, 알팍한 CGI 액션이 아닌 아날로그 액션의 거친 질감과 무게감, 온갖 고물을 기발하게 조합한 각종 무기와 탈것들의 재미, 그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 가장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리고 부족한 자원을 두고 극한에 치닫는 인간 존재의 공포영화적이면서 블랙코미디적인 자화상, 마초 액션과 페미니즘 코드의 절묘한 결합. 이와 같은 '퓨리오사'의 장점들은 모두 이미 전작 '매드맥스'에서 보여진 것이다. 프리퀼의 주요 악당인 디멘투스가 모터사이클 세 개를 엮어서 마치 말이 끄는 고대 로마 전차처럼 타고 다니는 모습 등(사진) 몇 가지 새로운 재미거리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새로운 요소 중에는 난데없이 나온 영국 빅토리아시대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1849~1917)의 그림도 있다. 영화에서 이 그림이 등장하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즉 멸망 이후의 세계에서 황무지를 지배하는 3대 요새가 있다. 물을 독점해 식량을 생산하는 '시타델', 탈것과 기계를 돌리기 위한 연료를 생산하는 '가스타운', 그리고 쇠와 석탄을 채집해 무기를 생산하는 '무기 농장'이다. 이 3대 요새의 리더들은 물물교환을 하며 공생과 견제를 이어간다. 그런데 떠돌이 바이커 군단을 이끄는 디멘투스가 이들 사이를 휘저으며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는 트로이목마 작전을 펼쳐 결국 가스타운을 점령하고 그 리더를 살해한다. 이때 그리

포스트 아포칼립스배경 '퓨리오사' 워터하우스 '힐라스와 님프들' 등장 헤라클레스·힐라스 신화배경인 그림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황폐함 등 강조 헤라클레스가 힐라스 아버지 살해 악당과 주인공 관계 상징 분석도

터는 멸망 이전의 유물인 낡은 화집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그림을 확대해서 대형 벽화로 그리고 있는 중이었다. 바로 워터하우스의 '힐라스와 님프들'이다.

이 그림은 한마디로 '매드맥스' 시리즈의 전반적인 환경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되는 그림이다. 메마른 황무지와 대조되는 맑은 물 넘치는 연못, 낡은 기계들과 대조되는 자연의 녹음과 만발한 수련, 방사능 후유증과 공핍에 찌든 사람들과 대조되는 물의 님프(정령)들과 미소년 힐라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태, 살벌한 분위기와 대조되는 낭만적이고 말랑말랑한 분위기 등에서 말이다. 아마도 이 그림은 멸망 이후 황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극한



영국 빅토리아 시대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힐라스와 님프들'(1896).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총애했던 미소년 힐라스가 그의 미모에 반한 연못의 정령들에 의해 물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진 영국 맨체스터 미술관)

상황에서 극대화되는 인간의 잔인하고 추한 면모와 그런 인간조차 마음 한 구석에서 동경하는 아름다움의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했을 것이다.

영국의 미술 잡지 '아트리뷰'는 이 그림의 바탕이 된 그리스 신화를 언급하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해석을 한다. 신화에 따르면 미소년 힐라스는 헤라클레스가 총애했던 시종이었고,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한 영웅들의 모험 여행 '아르고호 원정'에도 헤라클레스와 함께 참가했다. 그런데 아르고호가 어느 섬에 정박했을 때 물을 길으러 연못에 갔다가 그의 뛰어난 미모에 반한 연못의 님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일설에는 님프들에 의해 강제로 물로

끌려들어갔다고 하고, 또 다른 설에는 님프들이 불로불사를 약속했기 때문에 힐라스가 자신해서 그들 곁에 남았다고도 한다. 힐라스가 돌아오지 않자 헤라클레스는 애타게 그를 찾았지만 이미 연못 속으로 사라진 그를 찾지 못했다.

이 신화에서 아트리뷰가 주목하는 것은 힐라스의 아버지인 테이오다마스 왕이 헤라클레스와 다투다가 죽임을 당했고 힐라스는 아버지의 원수의 손에 납치되어 그의 시종이 되었다는 신화 내용이다. 이것이 '퓨리오사'의 주인공인 퓨리오사와 악당 디멘투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멘투스는 퓨리오사의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지만 퓨리오사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데다가 매우 강인하고 영리한 아이인 것에 끌려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딸처럼 데리고 다닌다. 결국은 퓨리오사에게 어머니의 복수를 당할 운명이지만 말이다.

낭만적이고 섬세한 작품, SNS 타고 인기 밀러 감독이 과연 아트리뷰의 견해대로 그림에 등장하지 않는 헤라클레스와 힐라스의 신화 속 관계까지 염두에 두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워터하우스의 그림을 어떤 미학적 의도를 가지고 등장시킨 것은 명백

하다. 워터하우스는 주로 옛 신화와 문화를 낭만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뛰어난 테크닉으로 자연과 인물들의 얼굴을 무척 아름답게 그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섬세한 감정을 담아냈기 때문에 명성을 얻었다. 세계 각국의 산업과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낭만주의와 도피주의가 유행하던 것도 그의 인기

에 한몫 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추상화 등 전위 미술 운동이 일어나면서 워터하우스의 작품은 구시대의 것으로 여겨졌다. 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부터다. 클래식한 화풍의 작가들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그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 그리고 그가 그린 인물들의 표정에 담겨 있는 복합적이고 섬세한 감정이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타고 대중적 인기를 다시 끌고 있다.

이렇게 낭만적인 아름다움의 대표이자 섬세한 감정의 그림이기에 폭력이 난무하는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퓨리오사'에서 "신화적 암시와 상징"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닐까.

문소영 기자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프리퀼인 '퓨리오사:매드맥스 사가'(2024)에서 악당 디멘투스가 이끄는 떠돌이 바이커 군단. (사진 워너브라더스)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DC 창고	DC 사평센터	DC 단독건물	DC Mixed-Use	DC 사평센터	DC NW 아파트
SOLD	SOLD	SOLD	SOLD	SOLD	SOLD
\$2.5M DC NoMa Metro 상권	\$2.4M DC Capital Hill 지역	\$1.5M Benning Rd., 개발지역	\$1.6M Capital Hill 지역	\$4.5M Popeyes, 연인컴 \$32만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DC H Street	DC Warehouse	DC Warehouse	DC Warehouse	for SALE
SOLD	LEASED	SOLD	SOLD	SOLD	
\$930K Retail / Residential	단독건물 Union Station	\$6.8M 67,000sf, Industrial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NW Metro 상권

DC 건물 리스킹 하실 건물주 분들!

DC 건물 테넌트와 TOPA 거래 전문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나치즘 선전극, 일본 셀프 사면쇼, 중화 부활 선포식 ...

(1936년 베를린)

(1964년 도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메가 이벤트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의 이상과 야망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만한 본보기는 없다. 스포츠에서 메가 이벤트란 대체로 규모 면에서 100만 명이상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를 뜻한다. 단 기간 개최되지만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오래 간다.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인 1931년에 유치한 올림픽을 5년 뒤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이 개최한다. 베를린에는 '프로파간다의 귀재' 요제프 괴벨스, 1934년 나치당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기록영화인 '의지의 승리'를 제작한 레니 리펜슈탈, 스포츠 이벤트의 대가 칼 딘이 있었다. 올림픽은 거대한 선전 무대였다. 나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 봉송 최종주자 프리츠 실겐이 올림픽아슈타디온에 도열한 나치 수뇌부 앞을 달리고 있다. "그가 독일적인 이상에 걸맞은 신체를 보유했기에 최종주자로 선택됐다"고 베를린 올림픽 기록영화 감독은 밝혔다. [위키미디어]

기록 영화 '올림피아' 나치의 이상 구현
1936년 8월 1일, 올림픽아슈타디온의 본부석 오른쪽 스탠드 위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흰 운동복을 입은 청년이 등장한다. 청년은 스탠드를 내려가 본부석 앞을 지난다. 히틀러가 굽어본다. 청년은 반대편 스탠드로 씩 없이 달려 올라간다. 마침내 거대한 원반을 엮은 세발 받침대 앞에 멈추어, 성화봉을 번쩍 켜켜든다. 프리츠 실겐, 1906년 크론베르크에서 태어나 올림픽이 열릴 때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최종주자로 선택된 이유는 간단하다. 베를린 올림픽 기록영화 '올림피아'를 감독한 리펜슈탈은 '독일적인 이상에 걸맞은 신체였다'라고 표현했다.

신체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신성(神性)을 드러내며, 아리안 족이 고양해야 할 가치였다. '올림피아'는 나치의 이상을 구현했다. 도입부에서 그리스 신전의 폐허와 흩어진 신들, 균형이 완벽한 원반던지기 선수의 조각상이 차례로 등장한다. 원반 던지는 선수의 조각이 건장한 남성의 움직임으로 바뀌면서 젊은 여성들의 군무(群舞)가 화면을 메운다. 거의 알몸이다. 창과 포환을 던지는 남성은 미켈란젤로의 조각 '다비드'와 같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말한 '금발의 야수'들이다. 니체는 '소름 끼치는 살인·방화·능욕·고문을 해치우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즐거움에 찬 괴물'이라고 썼다. 여성들은 풍만하고도 유연하다.

나치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그리스에서 개최까지 성화를 봉송했다.

알려지기로는 칼 딘의 기획이다. 이후 성화 봉송은 올림픽의 전통이자 개막식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올림픽아의 신전에서 얻은 불씨는 그리스의 정신, 유럽 문화의 정수(精髓)다. 그것이 제3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맹렬히 타오른다. 이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딛고 일어서 유럽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나치는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하고 영화로 기록했다. 28년 뒤 열린 도쿄 올림픽의 개막식은 베를린 올림픽의 복제품이다.

1964년 10월 10일, 도쿄올림픽경기장에 성화가 도착한다. 마지막 주자는 '원자폭탄의 아이' 사카이 요시노리다. 그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1시간 반 뒤에 태어났다. 메시지는 선명하다. "우리는 비인간적인 원자탄 폭격의 희생자다. 그러나 살아남아 다시 일어섰다!" 이 치가와 곤이 개막식을 기록했다. 영화 '도쿄 올림피아드'. 전쟁범죄자인 일왕 히로히토가 박수를 친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심장은 다른 방식으로 뛰었다.

소설가 이시카와 다쓰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가국들이 그 당시의 원한과 증오를 잊고, 각자의 국기를 들고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입장식에 참여한 것"에 감동한다. 그리고 "젯더미로 변한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패전 후의 혼란과,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던 당시의 일본의 모습. ... 그 당시의 일본과, 이 성대한 의식을 개최하고 있는 일본이 같은 민족의 모습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인다. 화려한 개막식을 치러내는 일본의 국력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약 20년 전의 황폐했던 일본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김우희, 『일본의 문학자들이 기록한 1964년 도쿄올림픽』)

베를린 올림픽은 올림픽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받는다. 도쿄 올림픽은 전범국 일본의 '셀프 사면 쇼'였다. 그러나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치고 베를린과 도쿄를 비판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올림픽은 정치적이다. 아니, 올림픽은 정치이다. 정치, 경제, 민족주의, 패권주의의 뒤범벅이며 욕망이 격돌하는 전장이다. 올림픽은 선언하고 웅변한다. 메시지는 화려한 개막 행사에 집약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근대화를 완수했다는 '중진국'의 선언이기 이전에 군사독재 정권의 마지막 노래였다. 20년 뒤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은 아편전쟁 이후 짓밟힌 '중화'의 자존심을 끈주세웠다. 개막식의 메시지는 무시무시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다'

무섭기로 따지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빼놓을 수 없다. 2월 8일, 각국 선수단이 모두 입장한 라이스-에클스 스타디움에 찢어진 성조기가 등장한다. 소방관과 경찰 8명이 맞든 성조기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걸려 있다가 9-11 테러 때 훼손된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반대한 행사지만 조직위는 '9-11 테러로 상처 입은 인류애의 회복'을 내세워 강행했다. 누가 끈이 들었겠는가.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은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미국은 이듬해 이라크를 침공한다. 제2차 걸프 전쟁이다. 작전명은 '충격과 공포'였다.

문화적 역량, 테크놀로지 경연장 될 것
우리에게 고대올림픽에 대한 환상이 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올림픽이 열리면 전쟁을 하다가도 중단했다. 승리자들은 명예를 누렸을 뿐 속된 보상은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올림픽에 의한 평화'(Olympic Truce)는 고

대이나 현대이나 진실과 무관하다. 90회 대회가 열린 기원전 420년 스파르타는 피르코스과 레프레움에 파병했다. 별금이 부과됐지만 스파르타는 무시했다. 근대올림픽 창설 이후 전쟁 때문에 대회를 열지 못한 경우가 세 차례나 된다. 1916년 베를린 대회는 1차 대전, 1940년 도쿄와 1944년 런던 대회는 2차 대전 때문에 취소되었다.

2024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파리가 개최하는 세 번째 올림픽이 오는 26일 막을 올린다. 1900년 대회가 열릴 때는 제국주의 프랑스의 전성기였다. 식민지 주민을 전시한 '인간 동물원'이 시대의 타락과 벨 에포크의 종말을 예언했다. 24년 뒤 파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좋았던 시절을 추억했다. 그로부터 다시 100년. 개막 행사는 센 강에서 열린다. 각국 선수단이 배로 6km를 향해하여 에펠탑 건너편 트로카데로 광장 쪽 강변에 도착한다는 시나리오다. 파리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성화가 루브르박물관 앞 광장을 밝힐 때, 우리도 파리의 메시지를 깨달을 것이다. 금금한 것은 그곳에 비칠 우리의 모습이다.

올림픽은 냉전의 터널을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갈라선 세계는 경기장을 전쟁터 삼았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체제인가. 메달 숫자가 증명한다고 믿었다. 이 믿음의 양지에 스포츠 과학이, 음지에 약물과 협잡이 깃들었다. 한국은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고도 스포츠 정책은 동유럽식 국가아마추어주의(State Amateurism)를 채택한 특별한 사례다. 정책은 병역특례, 연금, 국립체육대학과 같은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하나 냉전은 끝났고 경기장은 체제의 우열을 가리는 전장이 아니다.

올림픽은 변함없이 정치적이지만 경기장은 스포츠의 지면과 문화적 역량, 테크놀로지를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다. 세계는 그렇게 올림픽을 누린다. 우리만 변함없다. 올림픽에 서식하는 개인,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의식은 그대로다. 국가대표 선수의 해병대 훈련과 '올림픽은 전쟁'이라는 야만의 언어도 냉전이라는 망령의 독백이다. 궁금하다. 우리의 냉전은 어느 곳에서 계속되는가. 냉전은 종교인가, 신기루인가. 또한 궁금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파리에 어울릴까.

허진석 한국체육대 교수



1 베를린 올림픽에서 처음 도입된 성화 봉송 장면. 오른쪽에 군인들이 도열해 있다. 2 1964년 도쿄 올림픽 성화 점화자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에 태어난 사카이 요시노리였다. [위키미디어]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투머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p>SOLD</p> <p>Bowie</p> <p>\$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 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화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화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 싱글홈, 방4, 화2.5</p>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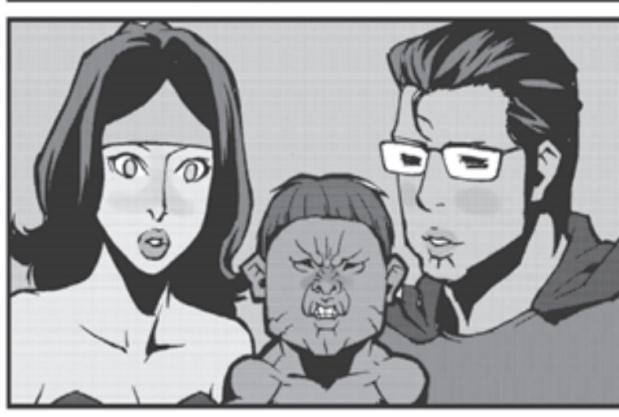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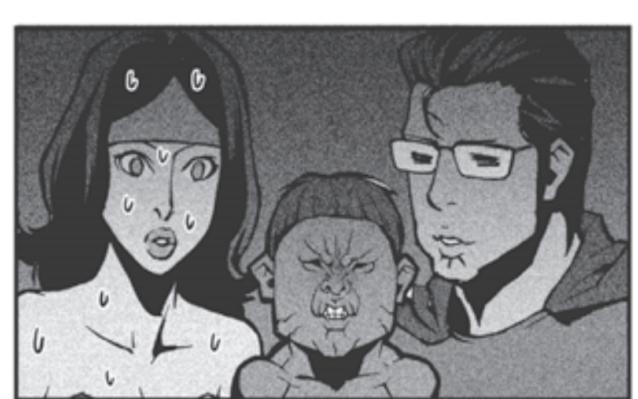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히어로**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7월
구
인
광
고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판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판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판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레슨, 홈비즈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 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이미지전달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자세한 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인/구직

▶▶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애난데일. 시원한 사무실 파. 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라켓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력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지'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i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 가능. 경력자우대. 엘라켓시티 240-426-5678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싱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음식점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라켓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식당/제과/델리/식품

▶▶텍사스도넛 센터빌 베이커보조 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
케어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 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지, 프레스,
빨래 /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동글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들에서 파트
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정철하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너스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에어컨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정비/바디샵

HD Plus Construction

밀집업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트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테리어,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저택
-1, 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플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부동산 렌트

방3, 화2, 유포 (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아난데일 콘도 방1/화장실1
Safeway 건너편, 교통편리.
마루바닥 밝고 깨끗한 콘도.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육실별도/세탁기 월 \$640(유포)
대담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 렌트

▶▶아난데일 홈디포 근처 방 렌트 유포
703-598-5719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
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 취사가
가능. 출입문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아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 뒤 지하방/유포
703-887-5173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
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단독주택 \$ 524,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Ground / Split Level, NO HOA, 0.25 Ac
(1층에 방2, 화1 시니어 거주 편리)



1층 콘도 \$ 234,000
방2, 화2 / 콘도피 \$350
상가, 병원, 그로서리등 교통 편리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개인 사위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TTA 애난데일콘도 방1, 주방/욕실/지정주차
가,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애난데일 지역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 콘도, 방2, 화장실2, 2층, Loft애난데
일도서관서동쪽 0.7마일 콘도 방1,
취사가, 월 \$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뒷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룸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
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4, 화4, 펜리한 맨틀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빙룸,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이준식 부동산
703-768-1240

미셸 & 케빈 신 부동산
건물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사평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703-395-3128 / 571-243-5797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빙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옹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703-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벨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
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를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옴션 절반값으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토요타 2005년식 코롤라 199000마일
에어컨. 히팅. 4타이어 아주좋은
모든상태좋은
703-419-0337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571-232-6071(문자요망)

건축/페인트/마루

▶▶A HOME STAR
CONSTRUCTION 리모델링 부엌, 화
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
트랙터 MR. SONG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든가스 검사
페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우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삼품,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박, 확실한민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
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입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밍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an: This is a nice place.
 댄: 집 좋은데 그래.
 Roger: Thanks, I really like it.
 로저: 고마워, 나도 맘에 들어.
 Dan: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here?
 댄: 여기 산지 얼마나 됐지?
 Roger: Oh about three years.
 로저: 글썽한 3년 됐나.
 (Looking at Dan's glass) would like a refill?
 (댄의 술잔을 보면서) 좀 더 마실래?

Dan: Sure.
 댄: 그러지.
 Roger: There's more beer in the refrigerator. Feel free to help yourself to more.
 로저: 냉장고에 맥주가 더 있어. 얼마든지 더 마셔.
 Dan: Thanks. You have to come up and visit me in Seattle sometime.
 댄: 고마워. 자네도 언제 나보러 시애틀에 올라와야지.
 Roger: I'd like to. I've been so busy lately.

feel free to (do or have something); 얼마든지 ~하세요. 맘편히 ~하세요

Dan is visiting Roger's house in Los Angeles. They're both drinking beer...
 (앤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저의 집을 방문중이다. 둘이 맥주를 마시며...)

로저: 그리고 싶어. 최근에는 많이 바꿨어.
 Dan: How about coming up before Christmas?
 댄: 크리스마스 전에 와보는 건 어때?
 Roger: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I have some free time in November.
 로저: 좋은 생각이야. 11월에 좀 시간이 나거든.

(난 커피를 좀 더 마셔야겠어요. 가서 다시 채워줄게요.)
 ▶ come up: (북쪽으로) 올라오다 come down (내려오다)
 "You should come down and visit me in Mexico."
 (저 보러 멕시코로 내려오셔야 돼요.)
 ▶ how about ...?: ~은 어떨까요?
 "How about going to a movie tonight?"
 (오늘 저녁 영화보러 가는 건 어때요?)

기억할만한 표현

▶ a refill: (음료를) 다시 채워주기
 "I want some more coffee. I'm going to get a refill."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 고사리, 도라지, 두릅, 냉이 따위 (2)취가 드나드는 곳 (4)살갓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 (6)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음. 되새김 (8)갓난아이가 먹은 것 없이 처음으로 싸는 똥 (10)야구에서, 주자가 수비의 허술한 틈을 타서 다음 베이스까지 가는 일 (11)매우 가파른 돌의 언덕 (13)실린더 안의 피스톤이 최하의 위치에서 최상의 위치까지 한 번의 운동으로 밀어 내는 기체의 부피 (15)말을 탄 행렬에서 맨 앞에 선 사람.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 (17)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6월 6일 (19)급소에 바로 맞지 아니한 총알. ~ 맞은 호랑이 뿔뿔 (20)대낮에 꿈을 꾸.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공상 (22)장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는 사람 (24)광대뼈를 중심으로 얼굴의 아래쪽 턱 부분. 턱 부분이 뾰족하고 좁을 때 ~이 뺨 얼굴이라고 하죠 (25)차를 세워 두도록 마련한 곳 (26)하루에 두 번 조수(潮水)가 들고 나는 때. 낚시에서, 물고기가 가장 잘 낚이는 때

세로열쇠

(1)자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방향을 알아내는 계기 (3)방귀 등에서 나는 냄새 (5)사막에서 없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등의 현상 (7)앞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음 (8)차차. 속마음. ~이 뒤틀리다 (9)불룩하게 나온 배 (10)불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12)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14)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 먹고 사는 벌레 (15)물건 값이나 샀을 미리 내거나 치름 (16)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 (17)죽은 사람이나 신령 따위가 꿈에 나타남. 떠나시는 이는 자손의 꿈길에 작별의 ~을 한다 고 하건만 (18)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한 아주 뛰어난 작품. 이 꽃병은 고려청자 중에서도 특히 ~으로 꼽히는 유물이다 (19)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의 아래쪽. 선산하. 선산밑 (21)기운, 습도. 기압 따위가 하루 동안에 변화하는 차이. 맑게 갠 날이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보다 크고, 또 내륙일수록 크다 (23)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 나무나 놋쇠 따위로 대접처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한다

스도쿠

					4	6		
		8				3	4	
	3	2	6	5	8			7
8		7	9					
	5		8	1		4		2
2			4			8	6	
			5	4	6	2		3
	2	4			7			
		9	2					4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5	2	1	8	2	6	9	3
9	8	1	2	6	3	4	2	5
3	6	2	9	4	5	1	8	7
6	9	8	5	7	4	3	1	2
2	7	4	3	1	8	9	5	6
1	3	5	2	9	6	2	4	8
7	1	6	8	5	9	2	3	4
5	4	3	6	2	1	8	7	9
8	2	9	4	3	7	5	6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지역

매매 구인

30년 이상된 **미용재료상**
안전한 라티노 지역
역격: 인벤토리만!
LA 지역
(818)746-0521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년5천
년매 8만 (310)935-8925

정원기구 수리/판매점
30년 한주인 운영, 반가격
가든그로브 (714)788-4336

식당 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주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Hello K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현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미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라 살매 **Up to 40% 할인**
최종살매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